

1년 맞는 윤종규號

metro®
메트로 2015년 10월 27일 화요일 제3328호 www.metroseoul.co.kr

market index <26일>

코스피	2048.08	(+7.68)
코스닥	690.73	(+8.76)
금리(국고채 3년)	1.65	(변동없음)
환율(원·달러)	1132.50	(+4.50)

순대·떡볶이떡 '해썹' 인증 의무화 한다

<HACCP : 식품안전관리인증>

식약처, 영세업체 2020년까지 연장

식품안전당국이 떡볶이떡, 순대 등 국민이 자주 찾는 식품에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해썹)의무 적용 방침을 정했다.

김승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26일 순대 제조업체인 보승식품(경기 파주 소재)을 방문한 자리에서 2017년까지 순대, 알 가공품, 떡볶이떡 등의 HACCP 인증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3면>

10인 이하 영세 업체에 대해서는 HACCP도입 완료 시한을 2020년으로 연장할 방침이다.

김 처장은 HACCP의 신속한 도입을 위해 위생 안전시설 개선 비용을 최대 1400만원(비용의 70%)까지 국고로 지원할 예정이다.

영세 순대 제조업체 한 관계자는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더라도 비용 부담은 사라지지 않는다"면서 "2명이서 일하는 나 같은 영세 업자들은 문을 닫으라는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해썹을 도입한 업체들도 위생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영세상인을 위한 대응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미란 기자 actor@

일상 재테크로 '티클 모아 태산'



현대차 쏘나타. /현대차



KT 모델들이 데이터로밍 무제한 요금제 2종 출시를 알리고 있다. /KT

車 구매 시 유리한 신용카드는

현대차 살 땐 '현대M' 수입차는 '삼성V'

자동차를 사고 주유할 때 유리한 카드는 어떤 것일까. 운전자나 예비운전자라면 누구나 한번쯤 고민해봤을 것이다. 이에 신용카드사들은 자동차 구입과 주유 시 혜택을 주는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26일 각사에 따르면 현대카드M은 대표적인 자동차 구매 우대 상품이다. 1포인트당 1원씩 최고 200만원까지 차량 구입 대금을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다. 적립한 M포인트가 없거나 부족할 때도 할인은 가능하다.

현대·기아차 구입 시, 차종에 따라 20만~50만원까지 선 포인트를 받아 차량을 구매하고, 매달 신용카드 이용액의 1.5%씩(M3 edition2 이용 고객은 2.5%씩) 적립한 포인트로 상환할 수 있다. 자동차 구매 고객은 차량 구입 후 36개월 내에 포인트를 적립해 상환하면 된다.

M포인트 신차구매 통장은 포인트를 보유한 고객에게 월 2%, 연간 최대 24%에 이르는 이자 포인트를 추가로 쌓아주는 서비스다. 현대·기아차를 2년 이내 구매할 계획을 가진 고객이 이 서비스에 가입하면 축하 포인트 3000점과 함께 이미 보유한 포인트와 매달 카드 이용으로 적립하는 포인트에 월 2%를 추가로 쌓아준다.

현대오일뱅크-현대카드M은 주유 시 할인과 보너스 포인트 적립 혜택을 제공하는 주유 제휴 카드 상품이다. 전월 카드 사용 실적이 30만원 이상인 고객은 현대오일뱅크 이용 시 유종에 상관없이 리터당 70원을 할인받는다.

삼성카드는 새차 구입 시 별도의 서류 작성이나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최대 36개월까지 할부로 나눠 낼 수 있는 수퍼오토할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 신청을 하고 개인 신용도에 따라 제공된 특별한도를 이용해 자동차를 구매하면 된다. 24개월 이하 이용시 연 5.3%, 36개월 이하 이용 시 연 5.5% 이자율이 적용된다.

스마트오토서비스를 이용하면 현금으로 자동차를 구매할 때 삼성카드로 결제하면 결제금액의 최대 1%를 현금으로 돌려 받는다.

고객에게 카드결제 금액의 0.2%를 캐시백으로 제공하며, 할부약정기간과 현금입금률(선수율)에 따라 연 2.0%~4.9%까지(온라인 기준) 할부금융 이자율을 제공함으로써 자동차 구입 시 고객의 비용부담을 덜어준다.

이같은 삼성카드의 서비스는 국내외 모든 자동차 브랜드가 대상이다. 삼성카드 6 V2는 차량과 관련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전국 S-OIL 주유소에서 주유 시 리터당 60원 할인 혜택(월 주유금액 20만원까지)이 있다. 차량안전점검 무료, 타이어펑크 수리 무료, 타이어위치교환 무료 혜택도 들어있다. 아울러 전국 스피드메이트, 애니카랜드, 카젠, 오토오아시스에서 엔진오일 교환 시 2만원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하나카드의 CLUB SK 카드는 주유에 특화된 상품이다. 전월 사용실적에 따라 SK 주유소와 SK충전소 사용 시 금액을 할인해준다. 40만원 이상 70만원 미만 사용 시 주유소에서 리터당 100원을 할인해준다.

/이정필 기자 roman@metroseoul.co.kr

해외 나갈 때 로밍 어떻게

1만5000원에 톡+음성 하루종일 무제한

이동통신 3사가 해외여행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차별화된 로밍 요금제를 선보이고 있다. 이용 목적과 이용자에 따라 이통사 간 다른 특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외 여행시 하루 1만원 이상의 활용도 떨어지는 요금제를 선택하거나 휴대폰 관리 부실로 생길 수 있는 '요금 폭탄'의 위험성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나만의, 내게 맞는 로밍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진다. 소비자도 일상 생활에서 '새는 돈'을 줄이며 한 푼이라도 아낄 수 있는 여행이 될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은 해외여행을 떠나는 가족·친구에게 데이터로밍 서비스를 선물할 수 있는 'T로밍 카드'를 지난 5월 출시했다.

T로밍 카드는 한장당 9000원(부가세 포함)에 해외에서 하루 동안 데이터로밍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실물 로밍 쿠폰이다. 카드에 적혀있는 쿠폰번호를 온라인·모바일 T월드, T로밍 홈페이지에 등록하면 전세계 145개국에서 T로밍 데이터무제한 원패스 기본형이나 기간형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T로밍 카드는 출시 5개월 만에 판매 10만장을 돌파했다.

KT는 신규 로밍 요금제 '데이터로밍 무제한 LTE' '데이터로밍 무제한 톡+음성' 등 2개 상품을 26일 신규 출시했다.

데이터로밍 무제한 LTE는 24시간 기준 1만5000원(부가세 별도)에 기존 3G 커버리지와 더불어 LTE 커버리지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중국, 일본, 미국 등 51개국에서 이용 가능하다.

데이터로밍 무제한 톡+음성은 저렴한 요금으로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만 무제한 이용을 원하는 고객들에게 유용한 상품이다.

24시간 기준 7000원에 100kbps 이하의 속도로 데이터로밍을 무제한 이용하면서 음성로밍 수·발신 5분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중국, 일본, 미국 3개국에서 이용 가능하다. 음성로밍 제공량 5분의 경우 사용할 때마다 사용량과 잔여분수를 문자로 알려준다. 소진시엔 음성로밍 서비스를 자동 차단해 요금폭탄 발생을 방지하는 기능도 있다.

LG유플러스는 올해 로밍 제공 국가 수에서 업계 1위를 선언하고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을 펼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지난달 자동 로밍(227국)과 무제한 데이터 로밍(152국), 음성과 LTE 로밍 요금제 제공 국가 수를 국내 최다 규모로 확대했다.

세대별 공략을 위해 무제한 데이터 로밍 전용 요금제도 출시했다.

올해 4월 출시한 '시니어톡' 요금제는 1일 5000원(부가세 포함 5500원)의 기본요금만 내면 전 세계 130개국에서 카카오톡 등의 데이터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정문경 기자 hm0108@

“We are the sentinels of subway”

“우리는 지하철의 파수꾼”



Subway service normally ends after midnight. When everybody is going to bed with the silence of the night, there are people who are busy working. The engineers of Seoul metro who check if there is any problem on the train.

Eventhough it was well over the midnight,1 AM on the 22nd, there were still a lot of people working like it was in the middle of the day in Seoul metro's Sinjeong subway Depot. The Sinjeong subway depot which is in Yangcheon-gu office station is departure point and destination of line 2 managing 84 of its trains.

The engineers check if there is any problem with the train. Taking responsibility for safety of the trains from the first train leaves and the last train comes back in is their job.

Because line 2 is a loop line, it is hard on trains. Besides, since there are more passengers using the line compared to other lines, the train breaks down easily.

Thus, the train needs to be checked more carefully. Kim Joong-Cheol(57 M) the head of engineer laughed saying “If you cannot avoid it , enjoy it. There are more amusing moments when I am working”.

He went “I have never thought of leaving this job because the work is rough” “We are working with the thought that we would have fun at work and we actually do have fun.”.

지하철은 보통 자정이 넘으면 운행이 끝난다. 밤의 침묵과 함께 모두가 잠드는 그때, 남들보다 더 바쁘게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 운행을 끝낸 지하철 차량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는 '지하철의 파수꾼', 바로 서울메트로 검수부 직원들이다.

지난 22일 새벽 1시 반 무렵 찾은 서울메트로의 신정차량기지. 자정을 훌쩍 넘긴 시간이었지만 마치 한낮처럼 많은 이들이 분주하게 오가며 일하고 있었다. 지하철 2호선 양천구청역에 위치한 신정차량기지는 2호선 차량 중 84대를 관리하고 있는 지하철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이다.

검수부는 차량에 이상이 없는지를 살피는 일을 맡고 있다. 막차가 들어오고 첫차가 나갈 때까지 지하철의 안전을 책임지는 일이 바로 검수부의 역할이다.

지하철 2호선은 순환선이라 지하철에 무리가 많이 가는 편이다. 또한 다른 노선에 비해 탑승객도 월등히 많아서 고장이 잦다. 그만큼 더 꼼꼼하고 열심히 차량을 검수해야 한다.

김중철(57·남) 부검수장은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 한다. 일하면서 즐거운 순간이 더 많다”며 웃었다. 그는 “일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다고 생각한 적은 없다”며 “즐기자는 마인드로 서로 즐겁게 일하고 있다”고 현장의 분위기를 전했다.

/EDB 영어회화학원 대표강사 닥터 벤

정치·사회

▲ 

박근혜 대통령은 내달 1일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한·중·일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취임 이후 첫 한·일 정상회담과 한·중 정상회담을 별도 개최하기로 했다.

▲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과 각종 민생법안 처리 문제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 **식품당국**이 2020년까지 전국의 떡볶이떡·순대 등 제조업체에 HACCP(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도입한 가운데 영세 업체들을 중심으로 도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실직자**들은 생계 유지수단으로 실업급여보다 가족 구성원의 소득에 더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위해 교육부 내에 비밀조직을 운영했다는 의혹에 대해 교육부는 “관련 업무가 증가해 현행 팀에 한시적으로 인력을 보강한 것”이라며 관련 의혹을 일축했다.

▲ 서울시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시 사업에 민간기업의 사회공헌사업을 접목한 새로운 형태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인 **'나눔주택사업'** 시작을 본격화한다.

▲ 서울시가 인사동~북촌~삼청동 일대에 생산부터 유통까지 원스톱으로 공예 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예클러스터'**를 조성한다.

▲ **유니버설발레단**(단장 문훈숙)이 클래식 발레 중 가장 드라마틱한 발레로 손꼽히는 대작 '라 바야데르'로 관객과 만난다. 27일부터 11월1일까지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에서 공연한다.



순대 제조 현장 찾은 김승희 식약처장 김승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26일 경기도 파주의 순대 제조업체 보승식품을 방문, 제조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김 처장은 2017년까지 순대, 알 가공품, 떡볶이 떡 등의 HACCP 인증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산업·경제

▲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가전업체들이 **김치냉장고** 판매 경쟁에 들어갔다. 올해는 김치냉장고 교체 10년 주기와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힘입어 판매량이 지난해 100만대를 넘어 120만대까지 넘어설 것으로 업계는 전망했다.

▲ 최근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4세대(4G) 롱텀에볼루션(LTE) 가입자 확보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면서 3G 사용자들이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SK텔레콤이 2.1GHz 대역에서 3G용으로 사용 중인 주파수 일부를 LTE로 전환하며 3G 이용자 보호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LG전자**가 올해 3분기 미국 드럼세탁기 시장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 드럼세탁기 점유율도 27.7%로 1위다. 이는 LG전자가 지난 2003년 미국 시장에 드럼세탁기를 선보인 이후 분기 점유율 기준 두 번째로 높은 성적이다.

▲ **이인원** 롯데그룹 부회장이 공식적으로 신동빈 회장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이인원 부회장은 지난 21일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그룹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 신동빈 회장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면서 신전 부회장을 비난했다. 이 부회장의 발언은 26일 뒤늦게 알려졌다.

▲ **두산**은 지역상생형 면세점을 구체화하기 위해 200억원 규모의 '동대문 미래장조재단'을 설립했다. 두산은 재단을 통해 면세점 운영시 동대문 상권 부활까지 꾀한다는 전략이다.

▲ **롯데칠성음료**가 필리핀에 이어 미얀마에서도 펩시의 판매가 늘면서 해외시장에서의 음료 매출 신장을 기대하고 있다. 롯데칠성이 합작법인을 설립해 유통하는 미얀마의 펩시 매출은 전년 대비 250%나 늘었다.

▲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이 취임 1년을 맞이했다. 윤 회장은 LIG손해보험을 인수해 KB손해보험으로 재탄생시킨데 이어 현재 KDB대우증권 인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배구조 안정과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발로 뛰는 그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자동차 보험**은 대인배상I, 대인배상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자기차량손해,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 등으로 구성된다. 자신의 운전 상황에 맞춰 특약을 선택하고 할인혜택을 비교 분석하면 보험료 절감에 도움이 된다.

▲ 자동차 구매, 주유 등 카드에 따라 혜택이 다양해 운전자나 **예비운전자**들의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현대기아차 구매자는 현대카드M, 수입차 구매자는 삼성카드V가 유리하다는 분석이다.

국제

▲ 

전경련이 도쿄에서 일본 게이단렌과 제25회 **한·일재계회의**를 열고 양국 간 통화스와프 재개 등 양국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한국이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분명한 사과 표명을 요청하고 있지만 일본이 거부해 2일 예상되던 회담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고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

▲ 제 18기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이하 5중전회)가 4일 동안의 일정으로 개막했다. 이번 5중전회의 핵심의제는 2016년부터 5년 동안의 경제운영 방향을 담은 13·5규획(13차 5개년 계획)을 확정하는 일이다.

▲ **벤 버냉키**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은 미국 경제의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성장 둔화 등 글로벌 악재로 연준의 금리 인상 결정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KB, 잃어버린 10년 1년 만에 되찾았다" 평가

1년 맞는 윤종규號, 평가는

국민·주택 계열간 파벌 정리 성과
조직강화 고삐 속 대우증권 인수 올인
회장·행장 겸임체제 분리는 숙제로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겸 국민은행장.

'상고 출신의 천재'다. 광주상고를 나와 성균관대 경영학과에 야간으로 입학, 외환은행에서 뱅커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은행에 다니면서 행정고시 차석으로 필기시험에 합격했고, 공인회계사(CPA)를 땄다. 그러나 공직의 꿈과는 인연이 아니였다. 학내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결국 면접에서 낙마했다. 지난 2008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불합격 취소 등 명예를 회복했다.

'장삿꾼(영업맨)'을 자처하는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의 얘기다.

최고경영자 윤 회장 곁에는 늘 '똑부'란 말이 따라 다닌다. 똑똑한데 부지런하기까지 하다는 것이다.

2002년 전 김정태 행장이 삼일회계법인에서 부대표로 근무하던 윤종규 최종 후보자를 영입하기 위해 세 번이나 찾아가 부탁한 '삼고초려'이야기는 금융권에서 유명한 일화다.

정통 KB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조직원의 두터운 신망과 어수선한 집안을 안정시킨 비결은 뭘까.

◆잃어버린 10년 명예 회복

지난해 11월 21일 KB금융지주의 수장이 된 윤 회장.

그에게 주어진 첫번째 과제는 무너진 조직을 추스리는 일이었다. 국민(1채널)과 주택(2채널) 합병 이후 KB는 고질적인 채널 갈등에 시달려 왔다.

은행장 겸직으로 회장 행보를 시작한 그는 취임하자마자 지배구조 안정을 위해 '그룹경영관리위원회'를 신설했다. 더불어 은행은 외형 성장보다 고객 신뢰 회복, 핵심 경쟁력 강화를 모토로 기능과 역할을 정비했다.

그는 "은행은 영업중심, 고객중심이면 충분하다"면서 "1채널(국민은행), 2채널(주택은행) 식의 파벌이나 사내 줄대기를 꾀하려는 직원들은 일벌백계하겠다"고 강조하며 분위기를 다잡았다.

KB금융지주는 2년4개월만에 사장직을 부활키로 하고 지난 19일 김옥찬 SGI서울보증 사장을 지주 사장 후보로 단독 추천했다. 윤 회장 겸 국민은행장이 행장직을 분리하는 대신 지주 사장 자리를 만든 것으로 해석된다.

은행의 체질도 많이 바뀌었다.

KB가 전통적으로 약하다고 지적받아왔던 기업여신이 효자로 떠올랐다. 김재우 삼성증권 연구원은 "KB금융의 3·4분기 소호대출과 중소기업대출금액을 합산하면 2·4분기보다 3.2% 늘었으며 지난해 3·4분기보다 9%나 증가했다"며 "중소기업대출의 견조한 성장세는 영업력을 회복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자산관리(WM) 부문도 성장세다.

KB금융의 숙원 사업 중 하나였던 LIG손보를 자회사로 편입해 KB손해보험으로 재탄생시켰다. KB손보는 KB금융지주 자회사 중 KB국민은행에 이어 그룹에서 2번째로 자산이 많은 회사다. KB손해보험은 다른 계열사와 연계한 자동차 금융상품을 출시하는 등 시너지를 내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에 힘입어 KB금융은 3·4분기에 방카슈랑스 판매이익을 2·4분기보다 19% 올렸다.

이런 KB금융 일련의 변화를 이끈 이가 바로 윤종규 회장이다.

윤 회장은 최근 더욱 경영 효율화 고삐를 죄는 모양새다.

바로 KDB대우증권 인수에 올인하고 있다.

연결기준 자본총계 4조3049억원의 대우증권을 인수할 경우 업계 1위 증권사로 발돋움하게 된다. 현재 업계 1위인 NH투자증권의 자본총계는 4조4954억원이다.

KB금융은 사업 정책상 은행과 비은행의 포트폴리오를 6대 4 비중으로 맞춰야 한다. 대우증권을 인수해 리테일과 자산관리, 기업금융(IB) 분야를 아우르는 복합금융사로 도약하겠다는 청사진이다.

◆지배구조 등 남은 과제도

"그동안의 성과와 결실이 적진 않지만 현실에 안주하는 순간 퇴보할 수밖에 없다. KB가 1등 금융그룹의 위상을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기업이 되기 위해선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역량을 결집해야 할 지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

1년여의 짧은 시간에 적잖은 성과를 냈지만 윤종규 회장에게 숙제도 적잖다.

시장에서는 회장, 행장 겸임 체제를 언제쯤 바꿀지를 두고 말이 많다. KB금융 회장 겸 행장 체제는 조직을 빠른 시간에 안정화하는 밑걸음이었다. 하지만 윤 회장이 과중한 업무 부담에 대한 걱정과 내부 우려가 있는 것도 현실이다.

윤 회장은 '일정 시점이 되면'이라고 단서를 달았지만,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지배구조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1등 KB를 향한 도전도 아직은 미완이다.

가장 큰 과제는 낮은 생산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다. CEO스코어에 따르면 핵심 계열사인 국민은행의 상반기 직원 1인당 순익은 3550만원으로 상위권과의 격차가 2000만원 가량 났다.

삼성증권 김재우 연구원은 "KB금융은 영업력 회복을 통해 자산건전성, 지배구조, 사업 다변화 등 기초여건을 확충하고 있는데 이런 시도가 궁극적으로 다른 은행과 기업가치 차이를 줄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윤 회장의 도전은 이제 시작이다.

/김문호 기자 kmh@metroseoul.co.kr

"불량떡볶이 퇴출 공감하지만"… 영세상인 울상





식약처, 최대 1400만원 지원
상인들 "단가 올라 폐업 우려"
소비자는 "위생 강화" 환영

국민 간식으로 불리는 떡볶이와 순대의 위생 불량이 커짐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년까지 전국의 떡볶이떡·순대 등 제조업체에 HACCP(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도입하기로 했다.

소비자들은 이를 반기는 분위기지만 영세 업체들은 도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2~4명 등이 순대나 떡을 손수 제작하는 곳이 많아 설치 과정과 비용 등의 어려움으로 한숨을 쉬는 상인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상황을 알고 있지만 식약처는 별다른 대안 마련 없이 사실상 뒷짐만 지고 있다.

식약처는 26일 떡볶이떡과 순대, 알가공품 등 국민들의 소비가 많은 식품에 대한 HACCP 의무화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10인 이상 업체는 2017년까지 인증 설비를 갖춰야 한다. 소규모 업체들의 신속한 HACCP 도입을 위해 국고에서 최대 1400만원(비용의 70%)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업체들이 HACCP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필요한 설비 개·보수 과정을 지원하겠다는 의미다. 다만 이 과정에서 업체의 면적, 시설, 구조 등에 따라 지원 비용은 상이하게 지급된다.

소비자들은 HACCP 확대 방침에 환영하는 분위기다. 김혜연(44) 씨는 "최근 송학식품 대장균 논란으로 아이들한테 떡볶이를 해주지 않고 있다. 이런 와중에 (떡볶이떡·순대 등 제조업체의) 위생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 반가운 소식"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HACCP 도입으로 재료 단가의 인상 가능성이 적지 않고 영세 업체로부터 재료를 받아왔던 소규모 분식집이 재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적지 않다.

충북 음성 소재 A떡볶이떡 제조업체 대표는 "가게를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이나 설비 개보수 작업을 주인이 허락할 지 모르겠다"면서 "업체들마다 처한 상황이 다른데 의무 적용을 하겠다는 건 결국 문을 닫으라는 소리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순대 제조업체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충북 청주시에 있는 B업체 관계자는 "정부가 지원을 한다 해도 직원 2명이 전부인 우리 같은 영세업체엔 그런 돈은 없다"며 "도입을 위해 내부 구획 정리가 필요하고 공사를 해야 하는데 그럴 여건도 안 된다"고 말했다.

실효성 논란도 적지 않다. 실제 떡볶이떡 제조업체인 송학식품은 지난 7월 대장균이 검출된 제품을 팔다 적발됐다. 이 업체는 심지어 HACCP 인증 과정에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 들통나 지난 9월 인증이 취소되기도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HACCP의 실효성 논란과 관련, "상식적인 수준의 위생관리를 하지 않는 것을 적발해야 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인정한 뒤 "정부의 위생 관리와 영업자의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식품 단가 인상과 영세업체들의 존폐위기에 대해서는 "위생 관리를 위한 계도 과정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도산 위기를 알면서도 "(영세업체들을 위한) 논의는 현재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연미란·김성현 기자 actor@

3G주파수 LTE 전환… 1000만 이용자 울상

이통사, LTE 가입자 확보 전쟁에 '낙동강 오리알' 전략
신기술 등장… 3G 투자 축소·서비스 품질 '나 몰라라'

#국내 한 이동통신사의 3G 가입 고객 강민규(가명)씨는 최근 이동 중 통화가 끊기거나 인터넷 검색 중 서비스 불가 지역이라는 알림을 자주 접해 고객센터에 문의하자 "통신 문제는 아니다. 사용중인 스마트폰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러나 강씨는 자신이 사용중인 스마트폰은 3G 유심을 탑재한 아이폰6플러스로 최신 단말기라는 점에서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근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4세대(4G) 롱텀에볼루션(LTE) 가입자 확보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면서 3G 사용자들이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이동통신업체들이 2.1㎓ 대역에서 3G용으로 사용 중인 주파수 일부를 LTE로 전환하면서 상대적으로 3G 통신 서비스가 소홀해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통사들이 3G 서비스를 제공할 당시,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로 가입자들을 확보했으나 투자부담 및 4G 등 신기술 등장으로 사업 환경이 악화되면서 3G보다 4G 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며 "이처럼 3G에 대한 투자를 줄이면서 일부 3G 가입자의 통신품질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8월 말 미래부 기준 SK텔레콤과 KT의 3G 가입자는 870만명에 이르며 알뜰폰(MVNO) 가입자는 548만명에 달한다.

SK텔레콤의 경우 3G 주파수 40㎒ 폭 중 절반인 20㎒를 LTE 전환을 위해 사용 중지시키면서 534만598명(8월 말 미래부 기준)에 이르는 3G 이용자를 남은 20㎒로 수용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알뜰폰 3G가입자 250만여명을 더하면 SKT의 3G가입자는 78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KT역시 3G 주파수를 LTE로 전환하면서 품질 저하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다만 KT의 3G 가입자가 347만3594명(8월 말 미래부 기준)으로 SK텔레콤에 비해 200만명 가량 적다는 점에서 조금은 안정적이다.

한편 지난 8월 13일 열린 전파정책자문위원회에서 미래부는 SKT가 3G로 이용하고 있는 2.1㎓ 대역 40㎒폭을 LTE로 용도 변경해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3G 주파수 중 절반인 20㎒폭을 LTE로 용도변경해 2.1㎓대역의 기존 LTE 주파수 20㎒와 합해 8월부터 광대역 LTE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SK텔레콤의 2.1㎓ 3G 주파수는 내년 말(16년 12월 3일) 이용기간이 만료되어 조만간 정부에 반납될 예정이다. 이번 용도변경은 반납 후 재할당이 불확실한 LTE 주파수 20㎒폭의 이용 우선권 주장에 힘을 싣기 위한 포석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또한 용도변경을 통해 이통 3사중 유일하게 최대 속도 375 Mbps의 2밴드 광대역 서비스(40M+40M+20M) 마케팅이 가능한데다 8월 말부터 시행되는 미래부의 광대역 LTE 품질평가에서도 압도적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주홍 녹색소비자연대 정책국장은 "3G 품질저하 문제는 그동안 꾸준히 논란이 되고 있다. 통신사가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하고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건 맞지만 기존 서비스 사용자들의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돼 문제"라며 "주관 부처인 미래부는 통신사들의 주파수 사용 내용을 꼼꼼히 따져보고 소비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관련해 SK텔레콤 관계자는 "주파수 일부를 LTE로 전환된 건 맞지만 통화 품질이 떨어졌다면 문제가 됐을 것"이라며 "LTE(가입자 1700만)의 경우 똑같은 주파수폭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통신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글로벌 돈 풀기 경쟁 가속화… 韓, 선제적 금리정책 선보여야

新환율전쟁 <下>

전문가, 머니게임 희생양 우려
시장 안팎서 '금리 인하' 요구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 가을 연차총회가 열린 페루 리마에서 8일(현지시간)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단체 사진을 찍고 있다. 앞줄 맨 오른쪽에 김용 세계은행 총재와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가 나란히 앉아 있다. /AP 연합뉴스

'이웃 나라 거지 만들기(beggar-thy-neighbor)'로 불리는 환율전쟁은 한층 복잡해졌다.

우리에게 익숙했던 환율갈등은 약달러 환경에서 각국이 미 달러화를 상대로 벌인 통화절하였다. 하지만 최근 다시 고개를 든 환율전쟁은 달러강세 기조를 어떻게 자신에게 더 유리하게 만드느냐가 초점이다. 환경이 바뀐 만큼 신경 쓸 대상도, 구사할 작전도 대폭 늘어난 상황이다. 그만큼 우리의 대응도 더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 **80년 대 이후 두차례 통화전쟁**

80년대 이후 글로벌 환율전쟁은 크게 두차례 있었다.

시작은 1980년대다. 막대한 경상수지를 적자를 내고 있던 미국과 세계 최대의 경상수지 국가인 일본과의 전쟁이다. 미국은 경상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해 플라자 합의 등을 통해 달러와 약세 정책을 폈다. 아울러 슈퍼 301조로 알려진 종합무역법을 만들고, 경상수지 흑자국에 통상압력과 환율 절상압력을 행사했다.

1986년 만성적인 적자에서 벗어났던 한국은 글로벌 통화전쟁의 유탄을 맞았고, 원화가치는 급격히 절상됐다. 경상수지 흑자 기조도 4년 만에 막을 내리고 90년대 적자로 돌아섰다.

두 번째 시기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꼽는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은 양적완화 정책을 폈고, 선진국에 풀렸던 글로벌 유동성은 신흥국으로 흘러가 이들 지역 통화가 강세를 보였다.

이 시기 한국으로 글로벌 유동성이 유입되면서 원화가치가 절상됐다. 그 결과 2011년 이후 수출은 둔화됐다. 하지만 극심한 내수부진으로 수익 증가율이 크게 낮아지면서 불황형 흑자에 빠져들었다. 이는 다시 원화 가치 절상압력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현재 글로벌 경제 상황은 전 플라자 합의 이전과 비슷하다. 일본과 유럽이 앞다퉈 자국 통화를 떨어뜨리는 양적 완화 정책 탓에 지난 2년간 달러화 가치는 급등했다. 미국은 경제 회복세에 따라 제로(0) 금리를 벗어나려다 일단 유보했다.

문제는 선뜻 외환시장 개입에 나설수도 없는 한국경제의 현실이다.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 중인 한국 정부가 쓸만한 카드가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경험적으로도 별 재미를 보지 못했다.

1996년~1997년 사이에 외환당국은 외화부채의 원화가치를 낮추기 위해 비싸게 사들인 막대한 달러를 시장에 풀었다. 이는 결국 97년 11월 외환위기 사태의 단초를 제공했다.

2000년과 2001년에는 수출을 늘리기 위해 무리하게 환율 인상을 시도했지만 재미를 보지 못했다. 2003년과 2004년 사이에도 환율 인상을 위해 시장에 개입했지만 막대한 손실만 초래하는 참담한 결과를 겪었다.

이명박 정부때도 한차례 환율 폭풍에 홍역을 치렀다. 강만수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이 '낙수효과'를 이유로 시장에 개입한 것. 정부 초기에 947원 하던 환율을 1년 만에 1276원으로 35%나 급등했다. 이로 인해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국내 대기업들은 수출 호조로 막대한 이익을 보았다. 경제성장률과 국내총생산(GDP)을 비롯한 대외 지표도 개선됐다. 그러나 외환시장 개입에 나설 때 내 걸었던 낙수효과는 없었다. 일반 서민들은 물가 상승과 대기업 중심의 부의 편중, 확대되는 소득격차로 인해 오히려 심한 절망감을 느껴야 했다. 중소기업 또한 키코 사태로 도산의 아픔을 겪기도 했다.

◆ **강 건너 불구경해야 할까**

시장에서는 '3차 원고(高) 쇼크'가 오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

지난 1차(1999~2000년), 2차(2005~2007년) 때보다 심각한 이유는 최근 원화가 유독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국제결제은행(BIS)의 월간 실질실효환율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4곳과 브라질과 인도, 중국, 러시아 등 4개국 가운데 실질실효환율이 6번째로 높았다.

실질실효환율은 각국의 물가와 주요 교역상대국 통화 대비 자국 통화의 대외 가치를 측정하는 데 이용되는 것으로 기준점 대비 환율이 높아지면 통화 구매력은 커졌지만 수출경쟁력은 낮아졌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를 두고 한국경제의 체력이 좋아졌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기업의 채산성에 미치는 악영향을 생각하면 흘러 넘길 일이 아니라는 지적이 많다.

'신흥시장의 선두주자'라는 장밋빛 현실이 '글로벌 머니게임'의 희생양이 될 수 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런 현상의 배경에는 각국 중앙은행의 '돈 풀기 경쟁'이 있다.

주식시장에서는 외국인이 한국주식을 쓸어담고 있다. 금융투자업계는 "한국경제의 기초 체력이 탄탄한 영향도 있지만 환차익을 노린 핫머니도 적지 않다"고 분석한다. 글로벌 핫머니의 유입은 환율 하락을 부채질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한다.

과연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릴 것인가. 시장 안팎에서는 한국도 성장률 하락 문제를 풀기 위해 금리를 인하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모건스탠리는 11월 한은의 추가 금리 인하를 전망했다. "내수 심리 안정화를 위해 부동산 시장의 부양 기조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고, 성장 둔화 위험과 중국 인민은행의 추가 통화정책 완화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지나친 걱정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이현석 성신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그 동안 대기업을 비롯한 소수 경제주체는 환율 인상으로 많은 혜택을 보았지만, 다수의 서민과 중소기업은 오히려 피해를 봤다"면서 "현재 우리 경제수준은 대외적으로 건전한 상태며 더 이상 환율 변화에 일희일비하는 경제 시스템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문호 기자 kmh@

성장률 낮출까? 지킬까? 시진핑의 '딜레마'

<6.5%> <7%>

2015 5중 전회 ❶

2021년 창당 100년 맞춰 공산당 '중산층 생활' 약속 성장률 낮출땐 약속 못지켜

리커창 "7% 사수 말한적 없다" 일부 '6.5% 인하 포석' 분석도


텅 빈 중국 베이징의 쇼핑몰 모습. 당국의 공식 통계는 소비가 회복되고 있다고 하지만 중국의 상점과 백화점은 임대율이 곤두박칠 치면서 빈자리가 늘어나고 있다. /연합뉴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중국 공산당을 대표하는 권력의 핵심이다. 전국인민대표대회의 폐회기간 중 당대회의 결의를 집행하고 당의 모든 활동을 지도한다. 또 정치국원, 정치국 상무위원, 총서기,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등 중국 공산당의 최고지도부를 선출하고 대내외적으로 중국을 대표하는 국가주석과 군사력을 통솔하는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을 추천한다. 위원장격인 총서기, 중앙위원, 후보위원 등 300여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5년이다. 당대회에서 선출한다. 매년 한두 차례 열리는 전체회의는 '중전회'로 불리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와 함께 공산당의 3대 정치행사로 꼽힌다.

중국 공산당은 어떤 결정을 하게 될까. 악화된 경제 여건을 참작해 현실적인 성장 목표를 선택할까, 아니면 완전한 샤오캉(중산층 수준의 생활) 사회 건설을 위해 무리라도 해야할까. 중국 공산당이 성장률 딜레마에 빠져 있다.

제18기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이하 5중전회)가 4일 동안 일정으로 26일 개막했다. 이번 5중전회의 핵심의제는 2016년부터 5년 동안의 경제운영 방향을 담은 13·5규획(13차 5개년 계획)을 확정하는 일이다. 최근 증시 사태에 이어 경제성장 둔화가 가시화되면서 전세계는 5중전회의 결정에 주목하고 있다. 과연 중국이 경제성장률을 어느 정도로 잡느냐가 가장 큰 관심 사안이다. 경기 부양책 등 관련 정책의 윤곽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인들에게는 이번 5중전회가 특히 중요하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2021년까지 완전한 샤오캉 사회를 건설하겠다고 장담했기 때문이다. 2021년은 중국 공산당 창당 100년이 되는 해다.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면 공산당의 권위는 타격을 받게 된다.

2010년 17기 5중전회는 12·5규획에서 연평균 경제성장률 7%를 제시했다. 이후 성장률 7%는 중국의 경제상황을 판단하는 기준선이 돼 왔다. 이른바 '바오치'(성장률 7% 유지)이다. 이는 2012년 18차 당대회에서 당권을 쥐게 된 시진핑 국가주석을 비롯한 현재 지도부가 이 선을 사수하기 위해 고심해 온 이유였다. 특히 시 주석은 당권을 쥐는 순간 2021년까지 국내총생산(GDP)과 1인당 국민소득을 2배로 끌어올리겠다고 공언했다. 완전한 샤오캉 사회 건설 약속이었다.

샤오캉 사회 건설은 거의 30년전부터 중국인의 꿈이었다. 실용노선을 내걸며 정권을 장악한 덩샤오핑은 1987년 원빠오(기본적 의식주 해결), 샤오캉, 따퉁(태평성대)으로 이어지는 3단계 발전론을 제시했다. 따퉁이 이상적 목표라면 현실적으로 도달 가능한 최고치는 샤오캉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중국은 원빠오 단계를 지나 샤오캉 완성도 눈앞에 둔 상황이었다. 하지만 올해 증시 사태 이후 중국은 바닥부터 흔들렸다. 외부에서 중국의 경제 실체를 의심했고, 국가통계마저 노골적인 불신을 받았다. 최근 중국 당국이 3분기 경제성장률을 7%대 아래인 6.9%로 발표했지만 이마저도 불신 당했다.

외부에서는 5중전회에 현실적인 결정을 하라고 여론몰이 중이다. 5중전회를 앞두고 외신들 대부분이 6%대 성장률이 적합하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을 전했다. 일각에서는 6.5%라는 구체적인 수치도 내놨다. 시진핑 지도부 내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다. 리커창 총리는 "우리는 7% 성장률을 사수하겠다고 말한 적 없다. 대신 경제운행이 합리적 구간에서 유지되도록 하겠다고 밝혀왔다"고 말했다. 외부 일각에서는 5중전회에서 성장률 목표치를 6.5%로 낮추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고 해석하기도 했다.

하지만 성장률 목표를 낮출 경우 완전한 샤오캉 사회 건설이 힘들다는 게 문제다. 홍콩 명보는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연평균 6.5% 성장으로도 GDP 2배 달성이 가능하지만 1인당 국민소득 2배 달성을 위해서는 7.1%의 성장률이 필요하다"고 보도했다. 2010년 기준으로 샤오캉 사회의 기준은 GDP가 3000 달러, 1인당 국민소득이 1만8000 위안이고 농촌가정의 수입이 8000 위안은 넘어야 한다. 경제발전에 따라 샤오캉의 기대 수준이 높아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준은 더 상향된다.

5중전회가 열리는 상황에서도 중국 내 샤오캉 사회에 대한 기대는 사라지지 않았다. 칭화대 후안강 국정 연구원장은 신화통신에 "완전한 샤오캉 사회 건설은 13·5규획의 절대적인 과업"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신화통신은 "13·5규획은 새 지도부(시진핑 지도부)에서 제정하는 첫 5개년 계획으로서 전면적인 샤오캉 사회를 건설하는 100년 목표의 달성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 무게는 가히 가늠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시 주석을 비롯한 지도부는 2012년 당권을 쥔 뒤 이번에 처음으로 직접 5개년계획을 작성하게 된다. 완전한 샤오캉 사회를 건설하겠다는 약속을 뒤집는 결정을 할 경우 반대파의 공격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 증시 사태 와중에 베이징의 공산당 내부에서는 반대파의 노골적인 반감이 표출되고, 외신을 통해 고스란히 전파되기도 했다. 5중전회를 앞두고도 당내 반대파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이처럼 경제성장률 목표를 정하는 일은 경제적인 현실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고려까지 뒤섞인 복잡한 일이다. 현재 5중전회는 베이징 시내 모처의 호텔에서 철저한 보안 속에 비공개로 진행 중이다. 공산당 일당 독재국가인 중국의 최고권력자 300여명(중앙위원과 후보위원)이 여기서 설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설전의 구체적인 결과는 내년 3월 전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열려야 공개될 전망이다.

/송병형기자 bhsong@metroseoul.co.kr

버냉키 "중국 악재로 美 금리 인상 어려울 것"

"美경제 회복세 강하지만 신흥시장 약세가 걸림돌"



벤 버냉키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CNN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CNN 방송캡처

벤 버냉키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은 미국 경제의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성장 둔화 등 글로벌 악재로 인해 연준의 금리 인상 결정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버냉키 전 의장은 25일(현지시간)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재닛 옐런 현 의장은 힘든 결정을 앞두고 있다"며 "해외시장의 후퇴 속에서도 미국 경제회복 모멘텀은 기준금리를 인상해도 충분할 정도로 강하다는 점이 옐런과 그의 동료들 앞에 놓인 어려운 점"이라고 말했다.

버냉키 전 의장은 "미국 경제가 매우 강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다"며 주택, 자동차, 소비지출 등을 실례로 들었다. 하지만 그는 "옐런 의장은 중국을 포함한 신흥시장의 약세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준은 전통적으로 자국의 경제사정을 기준으로 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해 왔다. 하지만 최근 이례적으로 중국의 경제 상황을 언급하며 금리 인상 여부를 유보한 바 있다. 이로 인해 그만큼 중국의 경제 상황이 심각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일각에서 제기되기도 했다.

현재도 연준 위원들 사이에서는 금리 인상을 두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 연내 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위원들은 금리 인상 시기를 놓칠 경우 나중에 금리 인상을 급속히 단행할 수 밖에 없어 시장에 더 큰 혼란이 올 것을 우려하고 있다. 여기에 버냉키 전 의장의 주장처럼 금리 인상이 미칠 글로벌 영향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위원들이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국제통화기금(IMF) 등은 후자를 지지한다. IMF는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3.3%에서 3.1%로 하향 조정하면서 연준이 내년으로 그 시기를 늦춰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버냉키 전 의장은 '연준이 금리를 올려야 하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옐런의 전임자로서 나의 추측 때문에 옐런이 더욱 곤란한 지경에 빠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연준은 오는 27~28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개최한다. /송병형 기자

朴 대통령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호소하나?

오늘 국회서 시정연설

한·중FTA 국회비준 요청하고 예산안·노동개혁안 처리 당부



박근혜 대통령(사진)은 27일 국회를 찾아 국회 예산안과 경제활성화 방안 등을 포함한 시정연설을 한다.

박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재작년과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3년 연속 국회 본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하게 된다. 박 대통령은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과 각종 민생법안 처리 문제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시정연설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의 방향과 내용을 설명하는 기회인만큼 박 대통령은 예산안 편성 기조를 설명하면서 자연스레 내년도 국정운영의 방향을 밝히고 예산안의 시한 내 처리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와 민생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 등을 요청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최근 교과서 국정화 관련 여론조사에서 반대가 찬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내에서도 교과서 국정화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시점에 이뤄지는 것이어서 주목되는 상황이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교과서 문제를 비롯한 주요 국정현안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국민을 상대로 직접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22일 여야 지도부와의 '5자 회동'에서 교과서 국정화에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면서 노동개혁 법안과 경제활성화 법안에 대한 정치권의 협조를 요청한 바 있는 만큼 26일 시정 연설은 '5자 회동' 당부사항의 대국민 버전이 될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특히 박 대통령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와 민생법안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미래세대'와 '청년일자리', '경제활성화'를 시정연설의 키워드로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청와대 관계자들은 전망했다. 교과서 국정화는 미래세대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주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다. 노동개혁 5개 법안과 관광진흥법 등 국회에 3년째 계류된 경제활성화 법안들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안들이란 설명이다.

앞서 박 대통령은 '5자 회동' 당시 "현재 학생들이 배우는 역사교과서에는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될 나라로 서술돼있다"며 "우리 나라에 대한 자부심과 정통성을 심어줘야 통일 시대를 대비한 미래세대를 올바르게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노동개혁 법안과 관련, "우리 아들 딸들에게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활성화 법안에 대해선 "청년일자리 창출의 핵심 법안이다. 국회에 3년째 계류된 법안들에 대해 여야 지도부 결단으로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경제재도약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경제혁신·청년희망' 예산이라는 점, 맞춤형 복지정책 구현을 위해 전체 예산 가운데 복지예산 비중을 사상 처음으로 31% 넘게 편성했다는 부분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훈 기자 fun@metroseoul.co.kr

"한일 정상회담 내달 2일 제안"

靑, 日에 개최일자 제의 "日측 회신 기다리는 중"

박근혜 대통령은 내달 1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취임 이후 첫 한·일 정상회담과 한·중 정상회담을 별도 개최하기로 했다.

26일 청와대 관계자는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일·중 3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을 갖는 방안을 한일 양측 간에 협의해왔다"며 "최근 우리측은 개최일자를 11월 2일로 일본측에 제의했고 일본측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양국은 현재 정상회담 일정을 놓고 막판 조율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정상회담 일정이 최종 확정되면 박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게 된다.

박 대통령은 올해 3월 리콴유(李光耀) 전 총리의 국장 참석 때와 지난해 11월 베이징(北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등에 아베 총리와 만나 환담했으나 회담을 한 적은 없다.

박 대통령은 앞서 지난 15일(미국 현지시간)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에서 "아베 총리와 정상회담을 그 기회(한·중·일 정상회담)에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따라서 청와대가 한·일·중 정상회담 계기 한·일 정상회담 개최 제안을 공개적으로 설명한 것은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박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돼 있다는 평가다.

아울러 청와대는 이와 함께 보도자료를 내고 오는 31일 중국의 리커창(李克强) 총리와 양자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과 리 총리와의 만남은 2013년 6월 국빈 방중 때 가진 면담·만찬 등에 이어 이번이 다섯 번째다.

청와대는 "한·중 회담에선 양국관계 발전 방안, 한반도를 포함한 주요 지역·국제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한·중 정상회담(이달 31일)→한·일·중 정상회담(11월1일)→한·일 정상회담(2일)으로 이어지는 정상외교 일정을 소화함으로써 이번 기회에 동북아 3국 협력 체제 복원 구상을 본격적으로 진전시켜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에 따르면 리 총리는 박 대통령의 초청으로 31일부터 내달 2일까지 우리나라를 방문한다. 리 총리의 방한은 2013년 3월 취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리 총리는 방한 기간 박 대통령과의 양자회담, 정의화 국회의장 면담, 황교안 국무총리 면담, 한국 경제단체 주최 환영 리셉션 등의 일정을 가질 예정이다.

/연미란 기자

여야 '국정화 비공개 TF' 논란 점입가경

與, 정부에 '野 교과서TF 감금' 법적조치 공식 요구
野, 시정연설 '보이콧 강경론' 고개… 전술 막판 고심
교육부 "역사교육지원팀 인원, 근무 지원 형태로 늘린 것"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둘러싼 여야 간 대립과 갈등이 막말을 쏟아내며 극한 대치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26일 교육부의 '국정 역사교과서 비공개 TF(태스크포스) 운영'이 화두로 떠오르며 양측간 공방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TF 문건을 확보한 새정치민주연합은 "TF는 정권차원의 국정화 추진 비밀팀"이라고 규정, TF가 꾸려진 건물 앞에서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기존 인력을 근무 지원 형태로 늘린 것일 뿐이라며 여론을 오도 하지 말라"고 반박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즉각 반박하며 야당 의원들의 교육부 교과서 TF 사무실 진입시도와 대치사태를 '공무원 감금 행위'로 규정하고 형사고발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정부에 공식 요구했다.

이날 새정치민주연합은 교육부가 불법 TF를 운영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비밀 TF'를 고리로 청와대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25일 밤 교육부가 국정화 추진을 위해 행정절차법을 어긴 비밀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서울 동숭동 국립국제교육원 내 교육부 사무실을 급습, 내부에 있던 직원들과 대치하면서 정국이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25일 오후 새정치민주연합 국회 교육문화위원회 소속 김태년, 유은혜, 도종환, 정진후 의원(왼쪽부터)이 서울 혜화동 국립국제교육원 내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는 이 같은 의혹 제기에 "별도의 TF가 구성된 것이 아니라 기존 6명이었던 역사교육지원팀 인원을 근무 지원 형태로 늘린 것"이라면서 "별도의 조직이 아니라 인력이 늘어나는 상황이었던 만큼 반드시 공개해야 할 필요도, 숨겨야 할 이유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확대된 역사지원팀 운영 기간을 일단 행정예고가 끝나는 다음달 2일까지 운영한 뒤 이후 지원 형식은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밤부터 야당 국회의원들이 들이닥쳐 공무원들을 감금하는 작태가 벌어지고 있다"며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이런 일을 해도 되는지 정말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 서청원 최고위원은 "야당이 '화적떼'는 아니지 않나? 정당한 업무집행을 하는 현장에 찾아가 경찰과 대치하고 있는 야당은 정신차려야 한다"고 야당을 '화적'에 비유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도 "교육부가 자료 요구가 급증하니 인원을 보강한 것인데 산하기관에서 정상적 일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에 대해 업무방해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야당의원들은 이성을 되찾고 정상으로 돌아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문재인 대표는 서울 용산구 백범 김구기념관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갖고 "아베정권의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지난해 1월 안 의사를 '테러리스트'라고 말했다"며 "불행히도 일본의 아베 신조 정권과 똑같은 역사인식이 지금 대한민국에도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사교과서 국정화저지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도종환 의원은 "(TF에) 교육부 역사지원팀장 등 직원들이 들락거리는 것을 확인했고, 청와대 정무수석이 사무실에 오기도 했고, 어제는 차관이 왔다는 제보가 있다"며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진행해야 할 정책을 비밀스럽게 운영하는 조직은 해체돼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보이콧을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27일 오전 긴급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열어 최종 방침을 결정하기로 했다.

/연미란 기자 act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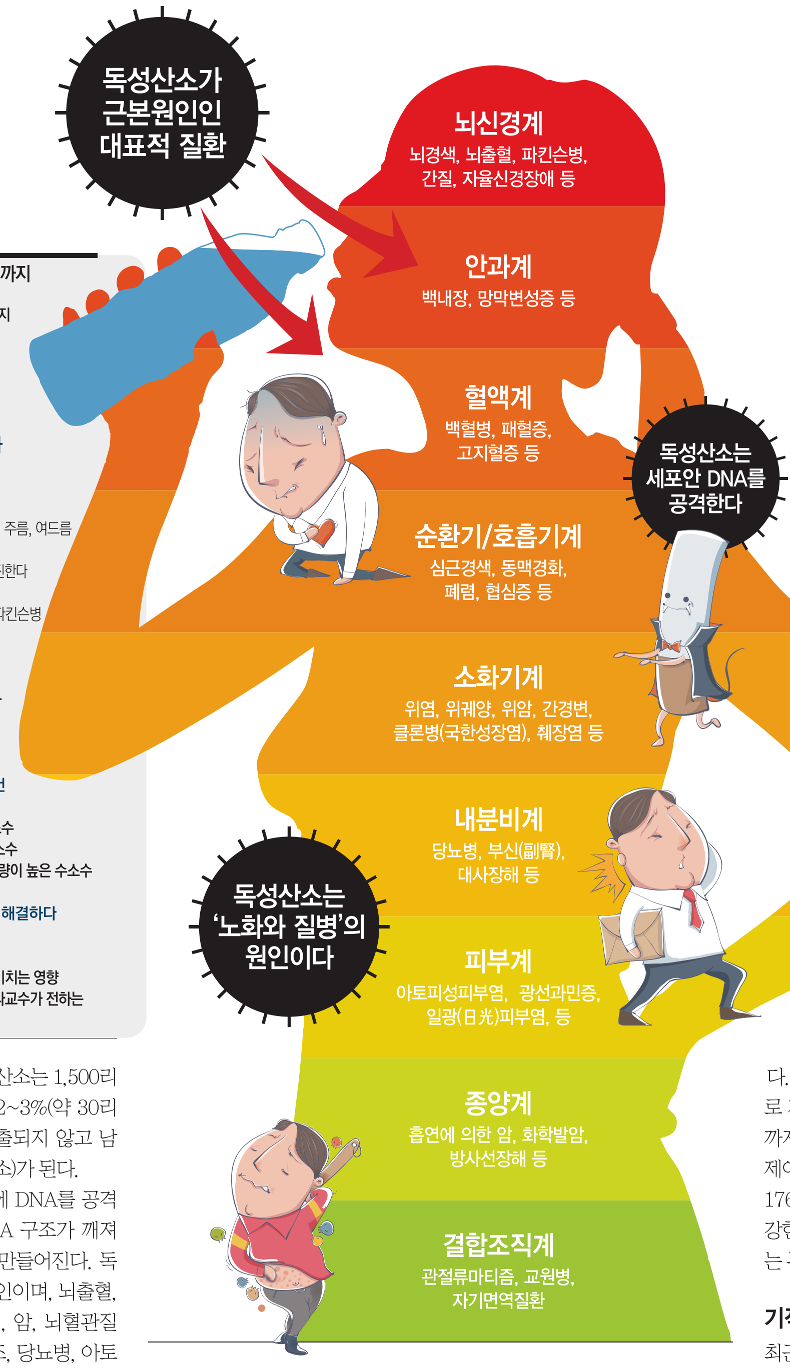
노화와 질병의 원인 수소수가 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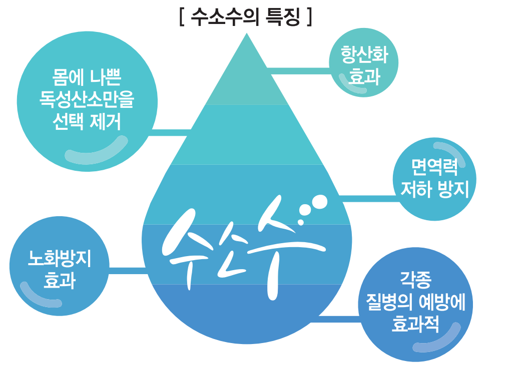
수소가 선택적으로 독성산소의 상해로부터 세포를 지킨다 – Nature Medicine 저널 발표



수소수가 답이다
지음 임동수·김서곤
출판사 상상나무
200쪽 | 값 13,500원

Contents / 수소水가 답이다!





질병의 90% 이상은 독성산소가 원인이다

활성산소는 면역기능에 사용되는 좋은 활성산소와 세포를 손상시키는 나쁜 활 성산소(독성산소)로 나뉜다. 독성산소의 발생은 고강도의 운동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과식, 음주, 흡연 및 환경오염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으며, 결국 세포를 병들게 하고 노화를 촉진시키는 원인이 된다.

사람은 하루 평균 2만회 이상 호흡하며, 양으로 따지면 1만 리터 이상의 공기가 호흡을 통해 드나든다. 호흡으로 흡수되는 산소는 1,500리터에 달하며, 이중 2~3%(약 30리터)는 몸 밖으로 배출되지 않고 남아 활성산소(독성산소)가 된다.

독성산소는 세포안에 DNA를 공격하고 그로 인해 DNA 구조가 깨져 돌연변이 암세포가 만들어진다. 독성산소는 노화의 원인이며, 뇌출혈, 치매는 물론 루게릭,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에이즈, 당뇨병, 아토피 등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된다.

모든 질병의 90%가 바로 독성산소가 원인이다(미국 존스홉킨스대 의학보고서). 결국 독성산소를 제거하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이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우리가 매일 몸을 씻는 가장 기본적인 행동이 전염병의 70%를 예방해 준다. 독성산소는 인체를 노화시키고 질병을 유발하기 때문에 몸 속 독성산소를 씻어주는 것이 건강의 기본이요, 지름길이다.

기적의 항산화제, 수소

인체에는 독성산소를 제거하는 인체 내 천연효소로서 항산화효소(SOD)가 있다. SOD는 20대까지는 왕성하게 생성되지만, 35~40세가 되면 더 이상 생성되지 않게 된다. 따라서 40대 이후에는 항산화 효소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항산화제가 필요하다. 수소는 독성산소만을 선택적으로 제거, 인체 각 기관 및 뇌세포에까지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항산화제이다. 수소는 비타민 C보다 무려 176배, 코엔자임 Q10보다 865배 강한 항산화 효과가 있으며, 인체에는 무해하다.

기적의 비밀은 수소수

최근 학계에서는 미네랄워터, 심층수, 탄산수에 이어 수소수를 주목한다. 프랑스 루르드의 샘물, 독일 노르데나우의 물, 인도 나다나의 우물 등 세계적으로 건강에 좋다는 물을 분석한 결과, 기적의 원인으로 생각할만한 특별한 성분들은 검출되지 않았다. 그러던 2007년 5월, 미국의 과학지 '네이처 메디슨'은 일본의과대학 대학원 오타 시게오 교수 연구팀이 연구한 '수소가 활성산소(독성산소)를 효과적으로 제거한다'는 논문을 게재하였다. 이 논문은 수소를 녹인 물이 강한 산화력을 가진 독성산소인 '하이드록실 래디칼(Hydroxyl Radical)'을 제거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자, 전 세계에서 치유의 물로 일컬어지는 물들이 수소수 연구실로 모이게 되었다. 연구진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적의 물을 분석해 본 결과, 일반적인 물에는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수소'가 대량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마침내 밝혀냈다. 기적의 물들의 유일한 공통점은, '수소'를 다량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독성산소만을 제거하는 수소수!

물은 모든 생명의 모체이며 근원이다. 물을 마시면 혈액과 림프액이 되어 온 몸을 순환하는데, 30초 후면 혈액에 흡수되고, 1분 후 뇌, 생식기, 태아에 전달된다. 10분 후엔 피부조직, 20분 후엔 간, 심장, 신장에 도달하며, 동시에 노폐물을 몸 밖으로 배출한다. 물은 모세혈관을 통해 인체 어디든 가며, 따라서 수소수는 몸 속 독성산소를 제거할 수 있다. **전국서점 판매중** **도서출판 상상나무**

문의 031.971.4800/www.smbooks.com

온도 유지 vs 유산균 vs 발효과학

120만대 시장 '김치냉장고' 전쟁 불 붙었다

교체 10년 주기 맞물려 삼성·LG·대유위니아 등 김장철 앞두고 판매경쟁





2016년형 삼성 '지펠아삭' 김치냉장고(왼쪽)와 LG 디오스 김치톡톡 김치냉장고. /삼성전자·LG전자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가전업체들이 김치냉장고 판매 경쟁에 들어갔다.

올해는 김치냉장고 교체 10년 주기와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힘입어 판매량이 지난해 100만대를 넘어 120만대까지 넘어설 것으로 업계는 전망했다.

삼성전자는 과거 김장김치를 주로 보관했던 땅속 환경을 구현한 '메탈 그라운드' 기술이 적용된 '지펠 아삭 M9000'를 전면에 내세웠다. 메달 그라운드는 냉기 전달과 보존 능력이 뛰어난 메탈 소재를 써 ±0.3도로 온도를 유지해 김치를 더 차갑고 아삭하게 보관할 수 있다는 게 삼성전자 측 설명이다.

이음매 없는 '메탈쿨링김치통'은 김치뿐 아니라 생선이나 육류를 보관할 때도 냄새 뱀이나 양념으로 인한 변색 걱정이 적고 세척이 편리하다. 또 냉장고 문을 열면 입구에 냉기를 커튼처럼 흘려 외부의 따뜻한 공기를 차단하고 내부의 냉기 유출을 방지하는 '메탈쿨링커튼' 기술도 적용해 냉기가 더욱 강하게 뿜어지도록 했다.

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 박병대 부사장은 "2016년형 삼성 지펠아삭 M9000은 '메탈쿨링김치통'으로 정온성과 편리함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LG전자는 김치의 감칠맛을 좌우하는 유산균에 주목해 '디오스(DIOS) 김치 톡톡'을 선보였다. '유산균 김치+' 기능을 스탠드형에 적용했는데 이를 통해 유산균 류코노스톡이 가장 잘 자라는 온도를 유지해 일반 모드 대비 12배나 많이 만들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또 6분마다 냉기를 내부 구석구석에 전달하는 '쿨링케어', 서랍문을 여닫을 때 냉기가 밖으로 새는 것을 막고 온도 편차를 줄여주는 '유산균가드' 등을 적용했다.

조성진 LG전자 H&A 사업본부장(사장)은 "디오스 김치 톡톡은 감칠맛을 만드는 뛰어난 유산균 관리 기능과 세련된 디자인으로 김치냉장고 시장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유위니아는 기존 제품과 차별화한 디자인과 '더 건강한 김치'를 콘셉트로 '딤채 마망'를 출시했다. 부드러운 곡선에 컬러풀한 색감을 더했으며, 딤채 스탠드형과 뚜껑형은 제품 외관의 소재와 표면에 변화를 줘 디자인을 중시하는 젊은 층을 공략하고 있다.

또 '슬림핏' 발효과학을 적용해 지방세포를 억제하는 바이셀라 유산균의 함량을 숙성 시 2배 강화했다. 안정된 그립감(쥐는 느낌)을 주는 '2-Way Ez' 손잡이로 문을 쉽게 여닫을 수 있도록 했다. 문을 열면 푸른빛이 나오는 '링 라이팅' 기능도 추가했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metroseoul.co.kr

"한중일 3국 공동 관광청 설립하자"

박삼구 경제인연합회장 청소년 교류활성화 제안도



박삼구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광위원장(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사진)이 26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 25회 한일재계회의'에서 관광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한중일 동북아시아 3국 공동 관광청 설립'과 '청소년 교류 활성화'의 2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한국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일본의 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가 한일 수교 50주년을 맞아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회의에서 박삼구 회장은 "유럽은 스페인, 이탈리아 등 33개의 유럽국가들이 공동으로 유럽 여행위원회(ETC)라는 기구를 통해 공동으로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쳐 지난 해 5억8000만명이 넘는 전 세계의 여행객이 유럽을 방문하는데 일조했다"며 "한·일뿐 아니라 중국까지 포함한 동북아시아 3국이 공동 관광청을 설립한다면 외래 관광객 수요 유치 증대 와 3국의 미래 지향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양성운 기자 ysw@

"신동주, 롯데그룹 발전에 도움 안돼"

이인원 롯데그룹 부회장 신동빈 지지글 올려



이인원 롯데그룹 부회장(사진)이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았다.

이인원 부회장은 지난 21일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그룹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 신동빈 회장에 대한 지지와 함께 신 전 부회장 비난의사를 밝혔다. 이 부회장의 발언은 26일 뒤늦게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인트라넷을 통해 21일 '임직원에게 전하는 글'을 게재했다. 이 글에는 "글로벌 경제환경 속에서 계속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마인드로 무장된 유능하고 검증된 분, 지금까지 롯데그룹의 성장과정에서 검증되고 고락을 함께하며 임직원의 신뢰를 쌓은 분(신동빈)이 그룹을 이끌어 나아가야 한다"며 신 회장을 지지했다.

/정용기 기자 yonggi@

LG전자, 9년 연속 美드럼세탁기 시장 1위

3분기 누적 점유율 25.6% 프리미엄제품 31.4% 기록



트롬 트윈워시 세탁기. /LG전자

LG전자가 올해 3분기 미국 드럼세탁기 시장에서 누적 기준 1위를 차지했다.

26일 미국 시장조사기관인 스티븐슨 컴퍼니에 따르면 LG전자는 올해 3분기까지 드럼세탁기 브랜드별 매출액 기준 시장 점유율 25.6%로 1위 자리를 지켰다. 3분기만의 드럼세탁기 점유율도 27.7%로 1위다. 이는 LG전자가 2003년 미국 시장에 드럼세탁기를 선보인 이후 분기 점유율 기준 두 번째로 높은 성적이다.

LG전자는 900달러 이상의 프리미엄 제품군에서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점유율 31.4%를 기록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LG전자는 미국 시장에 드럼세탁기를 출시한지 4년 만인 지난 2007부터 지난해까지 8년째 매출액 기준으로 드럼세탁기 시장 1위를 지키고 있다. 최근 2년은 연간 점유율이 25%를 상회한다.

LG전자는 내달 미국에 트윈워시를 출시해 프리미엄 시장을 지속 선도할 계획이다. 최근에는 미국 유통업체가 트윈워시를 신속하게 배송해 달라는 요청에 대응하기 위해 화물선이 아니라 항공편을 이용했다. 국내에서 생산한 세탁기를 항공기로 수송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트윈워시는 LG전자가 세계 최초로 드럼세탁기 아래에 통돌이 세탁기를 결합한 제품이다. 두 대의 세탁기를 동시에, 각각 사용할 수도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7월 말에 출시 후 기존 동급 용량 제품에 비해 월 평균 판매량이 4배에 이를 만큼 인기를 얻고 있다.

/정은미 기자

삼성, 360도 풍성한 사운드 오디오 'R1' 출시

삼성전자가 360도 어디서나 풍성한 사운드를 즐길 수 있는 무선 360 오디오 'R1'을 26일 국내에 출시했다.

무선 360 오디오 시리즈의 세 번째 모델인 R1은 삼성전자 고유의 링 라디에이터 기술이 적용돼 360도의 모든 방향으로 균일한 고품질 사운드를 제공한다.

R1은 오디오 상단을 두드리고(Tap) 쓸어 넘기는(Swipe) 방식의 직관적이고 감각적인 인터페이스를 적용해 편리함과 재미를 더했다. 터치형 인터페이스를 적용한 상단을 두드려서 음악을 재생하거나 정지할 수 있고, 쓸어 넘기는 동작으로 다음 곡과 이전 곡을 선택할 수 있다.

R1 출시와 함께 무선 360 오디오 전 시리즈는 기어S 시리즈와 iOS 기반의 웨어러블 기기 사용을 지원한다. 손목 위에서 간단한 동작으로 음악을 선택하고 음량을 조절할 수 있으며 재생 화면과 스피커 목록 등을 확인할 수 있다.

'R1'은 삼성전자 스토어와 매장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출고가는 19만9000원이다.

/정은미 기자

대우조선 노조, 채권단 자구계획에 동의

한 고비 넘겼지만 과제 산적
수조원대 부실에 도덕 불감증

대우조선해양 노동조합이 26일 밤 채권단에 자구계획 동의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대우조선 노조 현시한 위원장은 긴급발표문을 통해 "노조는 노사확약서 제출 관련 노조간부 동지들의 의견과 조합원 동지들의 의견, 대·내외적인 조건 등 여러 상황을 검토하고 심사숙고해 상집회의를 통해 채권단에 동의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우조선 사태는 한 고비를 넘기게 됐다. 하지만 대우조선의 회생은 아직 갈길이 멀다.



서울 중구 대우조선해양 빌딩. /연합뉴스

대우조선 부실 사태는 시간이 흐를수록 새로운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회사를 살리기 위해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해야할지, 기존 지배구조와 회사 조직으로 다른 민간 경쟁사들과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등의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대우조선의 수조 원대 부실은 해양플랜트 분야 대규모 손실에서 비롯됐다. 물론 해양플랜트 손실은 대우조선만의 문제가 아니다. 조선 빅3로 불리는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도 해양플랜트 사업에 뛰어들면서 수조 원의 내상을 입었다.

하지만 대우조선은 부실을 가장 늦게 인정하면서 피해를 눈덩이처럼 키웠다. 대우조선은 지난해 3분기만 해도 조선 3사 중 유일하게 흑자를 기록했지만 2분기 3조원대 해양플랜트 적자 폭탄을 맞았다. 경영권 쟁탈전이 원인이었다. 당시 경영진은 수조 원대 플랜트 손실을 알고서도 연임을 위해 눈을 감았을 가능성이 높다. 민간기업과 달리 정부에 의해 경영권이 결정되는 대우조선 최고경영자 쟁탈전은 그야말로 '다 먹거나 하나도 못 먹는(All or Nothing) 게임'에 비유되고 있다.

또 권력을 잡으면 사실상 누구도 제대로 관리할 수 없다는 점도 대우조선의 리스크를 높인다. 회사 주인은 주주지만 대우조선의 '과도기적' 최대주주인 산업은행과 금융위원회는 대우조선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도, 의지도 없다는 비판이 거세다.

산업은행은 올해 6월 말 기준 직접투자 형태로 128개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은행 임직원이 개별 산업 생리를 파악해 큰 그림을 그리거나 세부적인 관리감독을 하는 건 사실상 어렵다.

대우조선 최고재무책임자를 산업은행에서 직접 내려보내면서 재무와 관련된 내용을 파악하려 했지만 산업은행 측은 부실이 세상에 드러날 때까지 전혀 손을 쓰지 못했다. 대우조선 임직원과 노조들도 이미 '주인 없는 달콤함'에 빠져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삼성보다 더 큰 돈줄'로 불리는 산업은행 그룹에 포함되면서 방만하고 안이한 조직 문화가 뿌리 내렸다는 지적도 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지프 '올 뉴 레니게이드' 물량 완판

출시 일주일 만에 기록
레저활동 증가 영향



최근 소형 SUV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프의 '올-뉴 레니게이드'(사진)가 출시 일주일만에 초도 물량 완판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사실상 도심형 차량으로 겉모습만 SUV로 보이는 차들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지프 혈통의 디자인은 간직한 채 뼛속까지 진짜 소형 SUV'로 불릴만한 차가 등장해 소비자가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프 측 관계자는 "주말마다 캠핑과 레저 활동을 즐기는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트렌드도 지프 브랜드의 판매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실제로 지프 브랜드는 작년 대비 올해 판매가 30% 가까이 증가할 정도로 국내 소비자들에게 꾸준하게 상품성을 인정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출시된 '올-뉴 레니게이드'는 2015년 가장 멋진 신차(미국 켈리블루북), 2015 최고의 SUV(미국 켈리블루북), 2015 최고의 인테리어(워즈오토), Euro NCAP 최고 등급인 5스타, 2015 최고의 소형 SUV(스페인 Coches.net) 등 다양한 수상 경력과 함께 미국은 물론 유럽에서도 높은 제품력을 증명하고 있다.

지프 브랜드의 SUV 라인업을 완성하는 '올-뉴 레니게이드'는 지프 최초의 모델 '윌리스 MB'와 최강의 오프로더 '랭글러'의 피를 이어받은 정통 소형 SUV 모델이다. 프레임 바디와 모노코크 바디의 장점을 결합한 유니바디 구조를 채택해 도심과 아웃도어 등 다양한 환경에서 뛰어난 주행 성능을 제공한다.

유럽 스타일로 세팅된 서스펜션은 보다 민첩하고 정교한 핸들링을 제공하며 탄탄한 유니바디 차체의 구조는 오프로드와 온로드 주행에서 더욱 안정적인 코너링을 가능하게 한다. 최첨단 지능형 4×4 시스템인 지프 액티브 드라이브 로우, 9단 자동변속기, 뒤차축 분리 시스템, 지프 셀렉-터레인 지형 설정 시스템 등이 동급 최초로 적용되면서 도심과 고속도로, 야외의 험로 등 어떠한 도로 상황, 어떠한 기후 조건에서도 동급에서 가장 탁월한 주행 성능을 제공한다.

또 다른 장점은 유니크한 디자인이다. 지프 특유의 박스형 디자인을 바탕으로 한 반항적이며 에너지 넘치는 외관, 솔라 옐로우 등 9종에 이르는 다양한 외부 컬러와 그에 대비되는 내부 베젤 컬러의 조합으로 감성적인 느낌을 더해 준다.

또 차선이탈시 자동으로 복귀시켜 주는 차선이탈 경고 플러스 시스템과 사각지대 모니터일 시스템, 후방 교행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갖춰 안전성을 높였다.

국내 공식 판매 가격은 유럽보다 200만~450만원 저렴하다. 올-뉴 레니게이드 론지튜드 2.4는 3480만원, 올-뉴 레니게이드 론지튜드 2.0 AWD는 3990만원, 올-뉴 레니게이드 리미티드 2.0 AWD는 4390만원(부가세 포함)이다.

/양성운 기자

중국 LCD 패널 증산… 3년 내 한국 추월 전망

3년간 28조원 투자키로

중국이 평면TV와 스마트폰 부품 가운데 하나인 액정표시장치(LCD)패널에 대대적인 투자에 나선다.

25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BOE(京東과학기술집단)를 포함한 중국의 4개사가 3년간 총 3조엔(약 28조원)을 투자, 중국 내에 7개의 대규모 공장을 신설할 계획이다.

BOE는 안후이 허페이에 세계 최대의 유리 기판을 생산하는 최첨단 공장을 건설하는 것을 비롯해 푸젠성 푸저우와 쓰촨성 청두 시에도 잇따라 LCD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이들 3개 공장은 2017~2018년에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 NEC의 LCD 사업을 인수한 텐마웨이전자(CSOT)는 푸젠성 샤먼과 후베이성 우한에 고화질 중소형 패널 전문 공장을 건설한다. 이밖에 화싱광전과 난징중뎬판다도 증산에 나선다.

LCD패널은 일본 업체가 기선을 잡았으나 2000년대부터 한국 기업들이 높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엔 중국이 기초 기술을 마련한 뒤 설비 투자를 늘려 선두를 추격하는 양상이다.

7개 공장의 증산이 이뤄지면 중국의 유리 면적 기준 LCD패널 생산 능력은 2017년에 대만, 2018년에는 한국을 각각 제치고 선두로 올라설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TV나 스마트폰을 동남아와 인도, 아프리카 등 전 세계에 수출하고 있지만 필요한 LCD패널의 70%를 한국과 대만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중국의 LCD패널 생산 능력이 확충되면 가격 하락이 불가피할 전망이며 한국과 일본의 관련 기업들로서는 전략을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부닥칠지 모른다고 내다봤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

진에어, 베트남 하늘길 열었다

인천-다낭 노선 주7회 운항

진에어가 지난 25일 저녁 인천국제공항에서 진에어의 베트남 첫 번째 정기 노선인 인천-다낭 노선 취항식을 갖고 주 7회 운항을 개시했다.

이번 인천-다낭 정기 노선 취항식에는 마원 진에어 대표, 이광 진에어 경영지원본부장, 정훈식 진에어 운영본부장 등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국제공항 3층 9번 게이트 앞에서 진행됐다.



25일 저녁 인천국제공항 3층 9번 탑승게이트 앞에서 진에어의 인천-다낭 노선 운항을 알리는 취항식이 마원 진에어 대표(왼쪽 4번째)와 정훈식 진에어 운영본부장(6번째)이 참석해 진행됐다. /진에어

진에어는 인천-다낭 신규 정기 노선에 183석 규모의 B737-800 항공기를 투입해 매일 운항할 예정이다. LJ059편은 인천에서 21시 10분에 출발해 다음날 0시 15분 다낭에 도착한다. LJ060편은 다낭에서 01시 15분에 출발해 7시 25분 인천에 도착하는 스케줄로 운항한다.

진에어는 인천-다낭 정기 노선 취항으로 연간 약 13만 4000여석을 공급해 인천과 베트남 다낭 간 여행객들의 편의가 더욱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에어는 "이번 인천-다낭 신규 정기 노선 취항으로 국내 저비용 항공사 중 가장 많은 동남아 지역 5개 국가(태국, 필리핀, 라오스, 말레이시아, 베트남)의 8개 노선을 운항하게 됐다"며 "올 12월에는 필리핀 보라카이, 베트남 하노이, 태국 푸켓 정기 노선 취항이 예정된 만큼 보다 다양한 동남아 지역 항공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성운 기자

넥슨, 박용현 사단의 신작 '히트' 내달 출격

모바일 RPG 한계 뛰어넘는 초대형 그래픽
극강의 타격감·캐릭터 육성·스토리 다양화



26일 서울시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모바일 RPG 게임 '히트' 출시 기자간담회에서 이정헌 넥슨 사업본부장(왼쪽부터), 박용현 넷게임즈 대표, 윤용기 바른손 이엔에이 대표가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넥슨 제공

리니지2·테라 등을 개발한 박용현 PD의 첫 모바일 역할 수행 게임(RPG) '히트(HIT)'가 다음달 11일 구글플레이와 애플 국내 앱스토어에 정식 출시된다.

넥슨은 26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서울에서 넷게임즈가 개발한 히트의 미디어 쇼케이스를 개최해 히트의 세계관과 캐릭터, 주요 콘텐츠를 소개하고, 정식 출시에 대한 포부 등을 밝혔다.

히트는 언리얼 엔진4를 사용해 모바일게임의 한계를 뛰어넘는 최고의 그래픽을 제공한다. 여기에 '공중콤보' '던지기' '내려 찍기' 등 화려한 액션 연출과 자유도 높은 스킬 시스템을 통해 극강의 타격감과 캐릭터 육성의 묘미를 담고 있다. 또 총 180개 스테이지의 '모험 모드'와 특수 스테이지 '시험의 탑', 요일 던전 '성역' 등을 비롯해 '결투장' 및 '난투장' 등의 PvP(이용자간 대결) 모드, 최대 5명이 참여해 보스 몬스터를 공략하는 '실시간 레이드' 등 다양한 콘텐츠를 갖추고 있다.

이날 발표를 맡은 박용현 넷게임즈 대표는 "개발 기간 캐릭터 육성, 액션, 몰입감 등 RPG의 본질적인 재미를 모바일에 구현하고 언리얼 엔진4를 활용해 이를 극대화하는데 집중했다"며 "완성도 높은 모바일 RPG에 목말라있던 많은 유저 분들께 오랫동안 사랑 받는 게임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박 대표는 "언리얼 엔진4로 나아지는건 주로 그래픽 이슈인데, 다른 엔진으로도 품질이 좋게 나오지만, 히트를 몇시간하다가 다른 게임으로 플레이 해보면 차이를 확연히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언리얼 엔진4의 그래픽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밝혔다. 또 "초대형 게임이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개발 규모는 50여명으로 시작해서 60여명정도의 인력으로 개발 중"이며 "사운드 프로듀서는 독일쪽에 있는 스튜디오와 협업해서 제작하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번 '히트'는 스토리 구성에도 힘을 쏟았다. 30여명의 성우가 참여해 음향과 스토리 구성을 다양화했고, 유저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노력을 기울였다.

넥슨은 신규 프로모션 영상을 통해 사전예약과 향후 출시 일정을 공개했다. 사전예약은 10월 26일부터 오는 11월 15일까지 히트 브랜드 사이트와 구글플레이 사전 예약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 전원에게는 정식 론칭 2일 전인 11월 16일부터 게임을 미리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정헌 넥슨 사업본부장은 "히트의 주요타깃은 30대 남성 이상이지만 좀 더 젊은 층이 즐길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다"며 "히트는 그래픽이 주는 보는 즐거움과 비교할 수 없는 타격감, 방대한 세계관, 다양한 미션 등 온라인게임 스케일에 못지 않은 타이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하반기 최대 기대작이라는 수식에 걸맞은 콘텐츠와 서비스를 준비 중이니 많은 기대 부탁 드린다"고 밝혔다.

출시에 앞서 넥슨은 지난 10월 1일부터 닷새간 안드로이드OS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프리미엄 사전 테스트를 진행하며 히트의 다양한 게임모드, 사용자환경(UI), 실시간 콘텐츠 등을 집중 점검했다. 테스트 기간 중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참가자 95% 이상이 모바일게임의 스케일을 뛰어넘는 뛰어난 그래픽과 액션 연출 등에 만족을 표했다.

/정문경 기자 hm0108@metroseoul.co.kr



LG유플러스 모델들이 홈CCTV 맘카를 선보이고 있다. /LG유플러스

LGU+
표정 입힌 홈CCTV '맘카'

LG유플러스의 홈CCTV '맘카' 단말기가 귀여운 표정의 감성적인 홈 인테리어 소품으로 다시 태어난다.

LG유플러스는 홈CCTV 맘카를 귀여운 홈 인테리어 소품으로 만들 수 있는 다양한 표정의 부착형 스티커를 무상으로 고객에게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최근 CCTV 설치에 대한 고객의 니즈는 높아지고 있으나 CCTV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일부 남아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맘카를 설치한 가정집과 일반 소호(SOHO) 고객을 대상으로 소그룹 인터뷰와 시장 조사를 병행했다. 그 결과로 맘카 외장을 고객이 직접 꾸밀 수 있는 스티커를 제공해 일반CCTV와는 다른 맘카의 친근한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번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스티커는 맘카 전면에 부착할 수 있으며 웃음, 화남 등 5가지 표정과 넥타이, 안경 등 6가지 액세서리를 표현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제작됐다. /정문경 기자

카카오 '뉴스펀딩'→'스토리펀딩' 확대 개편

출판·영화·음악 등 다양한 창작자 지원

새단장 기념 후원 이벤트 진행



스토리펀딩 개편 기념 후원 이벤트.

다음 '뉴스펀딩'이 창작자 지원을 확대한 스토리펀딩으로 새 옷을 갈아입었다.

카카오(대표 임지훈)는 국내 콘텐츠 크라우드펀딩 산업인 뉴스펀딩 서비스를 '스토리펀딩'이라는 새 이름으로 개편하고 다양한 분야의 창작자를 위한 지원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스토리펀딩은 뉴스 콘텐츠를 넘어 책, 음악, 영화, 신기술 등 새로운 창작물을 만드는 사람들도 펀딩을 받을 수 있도록 참여의 폭을 넓힌 플랫폼이다. 더 많은 창작자와 후원자를 연결하고 소통의 장을 확대함으로써 크라우드 펀딩 산업과 콘텐츠 생태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이번 개편으로 스토리펀딩 창작자들의 초기 참여 장벽이 대폭 낮아졌다.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펀딩을 통해 생산하고 싶은 제품이 있거나 캠페인, 영화 제작, 도서 출판 등 나만의 창작 스토리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스토리펀딩에 문을 두드릴 수 있다. 프로젝트 제안을 받는 온라인 사이트(storyfunding.daum.net)를 통해 더 빠르고 효율적인 제안이 가능해졌고, 공식 온라인 사이트에서 스토리펀딩 프로젝트 개설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에 걸친 가이드라인을 확인할 수 있다.

스토리펀딩창작자에게는 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프로젝트 통합 관리 시스템인 '스토리펀딩 스튜디오'을 제공한다. 스토리펀딩 스튜디오는 프로젝트 개설부터 콘텐츠 제작, 리워드 설계, 후원자 관리까지 창작자 스스로 프로젝트 전반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PC와 모바일 환경에서 모두 이용할 수 있고, 스토리펀딩 스튜디오를 통해 다양한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양질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생산할 수 있다. 이밖에 펀딩 현황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통계 보고서와 리워드 운영 정보를 제공하고, 후원자 대상 대량 메일 발송 등 소통 기능을 지원한다.

스토리펀딩에서는 창작자와 후원자 간 소통 강화를 위해 커뮤니티 기능도 대폭 강화됐다. 창작자와 후원자간 양방향 소통 채널인 '파티'를 통해 창작자는 프로젝트 소개부터 공지사항 등 후원자와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후원자 또한 자유롭게 글을 게시할 수 있으며 창작자에게 직접 멘션을 걸어 의견을 남길 수 있다. 이밖에 후원자 대상 투표 기능, 창작자를 독려하는 응원메시지 카드 기능 등 후원자가 콘텐츠 제작 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이 제공된다.

서비스 이용 편의성도 높아졌다. 스토리펀딩 우측 상단의 사람 모양 아이콘을 클릭하면 내가 후원 중인 프로젝트와 리워드 정보, 즐겨찾기로 설정한 관심 프로젝트 리스트 등 서비스 이용 현황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후원 횟수에 따라 프로필 이미지가 업그레이드되는 색다른 재미 요소도 추가됐다. 0회부터 10회 이상까지 구간별로 총 7개 단계로 나뉘어지며, 단계별로 서로 다른 프로필 이미지가 적용된다.

김귀현 스토리펀딩 서비스 총괄은 "지난 1년간 200여개의 프로젝트가 25억원의 펀딩을 이끌어 내는 등 뉴스펀딩은 콘텐츠 창작자를 위한 후원 플랫폼으로 확고히 자리잡으며 콘텐츠 생산과 소비의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했다"며 "이제 스토리펀딩이란 새 이름으로 더 많은 분야의 창작자들이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며 최상의 펀딩 환경을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발전시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카카오는 스토리펀딩의 새로운 시작을 기념하는 창작자 후원 이벤트를 진행한다. 12월 31일까지 카카오톡 친구에게 스토리펀딩 프로젝트를 공유하거나, 후원한 프로젝트 '파티'에 글이나 댓글을 남기는 이용자 전원에게 펀딩에 참여할 수 있는 후원권을 제공한다. 스토리펀딩 프로젝트 중 하트 모양의 아이콘이 달린 프로젝트에 사용할 수 있다. 후원권 하나당 500원의 가치를 지니며 카카오가 전액 지원하는 방식이다. 후원권은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 사용할 수 있다. /양성운 기자 ysw@

車 보험료, 아는 만큼 줄인다

특약·견적 비교 꼼꼼하게 저렴한 다이렉트보험 대세

자동차 보험은 회사별로 다양한 특약이 있다. 또 보험료를 산출하는 요율도 제각각이어서 소비자들이 아는 만큼 돈을 절약할 수 있다.

본인에게 맞는 특약을 선택하고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비교 선택해야 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자동차 보험은 대인배상I, 대인배상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자기차량손해,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 등으로 구성된다.

이 중 대인배상I(대물배상 1000만원 포함)만으로 이뤄진 책임보험은 법적으로 정해져 의무적으로 가입(1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여기에 나머지 담보를 더한 종합보험을 구성할 때는 필요한 보장 항목과 범위를 살펴 결정하게 된다.

기본적으로 자동차 보험은 △운전자 범위를 좁힐수록 △연령 선택 나이가 많을수록 △차량옵션 장치가 많을수록 보험료가 내려간다.



자동차들로 가득 한 도로 위 전경. /KB손해보험

블랙박스를 설치한 차량은 보험료를 최대 5%까지 할인해 준다. 여기에 보험사와 상품별로 할인과 특약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운전상황에 맞춰 비교 견적을 내면 보험료 절감에 도움이 된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름 그대로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을 선택하는 것이다.

설계사를 거치지 않는 다이렉트 보험은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직접 가입하는 방식이다.

그만큼 수고가 따르지만 수수료가 없어 15%까지 할인된 가격에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운전자 본인이 원하는 대로 맞춤형 보험을 설계할 수 있어 합리적인 장점이 있다.

보상 서비스와 담보는 오프라인과 다르지 않아 스마트한 자동차 보험으로 자리 잡고 있다.

매년 자동차 보험료는 전년도 사고에 따라 보험사마다 할증률이 다르게 책정된다. 따라서 다이렉트 보험도 회사별로 비교하고 가입하는 것이 좋다.

안전한 방어운전으로 교통법규 위반을 하지 않고, 무사고를 이어가는 것도 보험료 책정에 중요한 요인이다.

KB손해보험 관계자는 "의무사항인 책임보험은 보상 대상과 범위가 매우 제한적인데 비해 종합보험은 대인사고의 경우 무한으로 보상이 가능하다"며 "안전에 직결된 보험인 만큼 종합보험을 선택하길 권한다"고 설명했다.

/이정필 기자 roman@metroseoul.co.kr



26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나눔 단말기 업무 협약식에서 김덕수 KB국민카드 사장(왼쪽 세 번째), 손연재 선수(왼쪽 네 번째), 박상원 월드비전 친선대사(왼쪽 다섯 번째), 양호승 월드비전 회장(왼쪽에서 여섯 번째) 등 관계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KB국민카드

KB국민카드 – 월드비전

기부 단말기 보급 통해 나눔활동 나서

KB국민카드가 월드비전과 손잡고 기부와 핀테크가 접목된 기부 단말기 보급에 나섰다.

KB국민카드는 26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김덕수 KB국민카드 사장, 양호승 월드비전 회장, 박상원 월드비전 친선대사, 손연재 리듬체조 선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월드비전과 '사랑의 빵 나눔 단말기 업무 협약식'을 열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KB국민카드와 월드비전은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신용·체크카드 또는 모바일 앱카드 'K-모션'으로 간편하게 결제해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단말기를 보급한다.

'사랑의 빵 나눔 단말기'로 불리는 기부 단말기는 △KB국민카드 본사 커피숍과 직원식당 △수도권 소재 KB국민은행 영업점 및 KB손해보험 고객센터에 우선 설치한다.

추후 지방 소재 KB국민은행 영업점과 KB손해보험 고객센터를 비롯해 고객의 이용이 많은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영화관 등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KB국민카드의 신용·체크카드 또는 K-모션을 단말기에 대면 1회당 1000원이 월드비전으로 기부된다.

모금된 성금은 아프리카 식수 펌프 설치 등 지구촌 어린이를 위한 식수 및 교육 사업과 국내 위기 가정 지원 사업 등에 사용된다.

KB국민카드는 이번 기부 단말기 보급에 앞서 지난 6월 핀테크와 나눔 활동을 연계해 별도 단말기 접촉 없이 모바일로 간편하게 기부할 수 있는 K-모션 간편 기부를 선보인 바 있다.

/이정필 기자

저축률 10년새 최고… 웃지도 울지도

소비성장 낮아진 탓 내수진작 부정 영향
일부선 '성장동력' 평가

27일은 저축의 날이다. 지난해 가계저축률이 최근 10년새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린다.

하지만 저축률은 너무 높아도 낮아도 고민이다. 경제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가계저축이 지나치게 낮거나 높을 경우 경제성장에 부담 요인이다. 서민들이 저축만 하고 주머니를 열지 않으면 내수는 얼어붙는다. 반대로 가계저축이 지나치게 낮을 경우 기업투자가 줄어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된다.

◆저축률 OECD 최저 수준

2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순저축률(이하 가계저축률)은 6.1%로 2004년(7.4%)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았다. 이는 전년에 비해 1.2%포인트 급증한 것이다.

김영태 한은 국민계정부장은 "가계저축률이 높은 것은 경제 안정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여러 가지 요인으로 가계 소비성향이 낮아진 점은 경기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시장 전문가들도 "질 낮은 서비스업 중심으로 고용이 늘고 자영업 상황이 악화하면서 국민소득 증가만큼 가계소득이 늘지 않고 있는데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 기조가 지속돼 미래에 대한 불안까지 겹치자 가계가 돈을 쓰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의견이 적잖다.

일시적으로 높아지긴 했지만 가계저축률은 지난 2001년 이후 5%를 넘은 경우가 2004년(8.4%)과 2005년(6.5%) 두차례 뿐일 정도로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올림픽이 열렸던 1988년 24.7%로 정점을 찍었던 가계저축률은 1990년대 평균 16.1%를 기록하며 하락세를 이어가 2001년(4.8%)부터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를 밑돌았다.

2011년 기준 한국의 가계저축률은 3.4%로 OECD 평균인 5.3%에 훨씬 못 미친다. 이는 9~13%에 달하는 독일, 프랑스, 스위스 등 유럽 주요 국가는 물론 저축 안하기로 유명한 미국(4.2%)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가계저축률이 구조적 하락국면에 있다고 지적한다.

그 요인은 인구 증가율 정체, 인구고령화에 따른 피부양인구 증가, 부동산가격 상승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확대, 저금리 기조 등이 꼽힌다.

◆"저축률 높여야 경제도 성장"

저축률에 대한 해석은 경제학자 사이에 다소 이견이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내수와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저축률을 점진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는 데는 대체로 의견이 모인다.

미국은 지난해 하원에서 '저축증진법'을 통과시키며 노후 대비와 생활 안정을 위한 가계의 저축을 장려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 김천구 선임연구원은 '가계저축률 급락과 파급 영향' 보고서에서 "가계저축률이 1%포인트 하락할 때 투자는 0.25%포인트, 경제성장률은 0.19%포인트 각각 하락한다"고 분석했다.

기업투자의 경우 가계저축률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며 이런 상관관계는 2000년대 들어 더욱 공고해졌다. /김문호 기자 kmh@



현대해상, 초등학교 3~6학년 여학생 달리기 행사

현대해상은 26일 서울 상암동 월드컵공원에서 초등학생 달리기 행사인 '소녀, 달리다'를 개최했다. '소녀, 달리다'는 초등학교 3~6학년 여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달리기 수업을 통해 인성과 체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현대해상

12월부터 車보험금 지급내역 문자 통보

보험사들은 오는 12월부터 '보험금 지급내역' 가운데 보험사가 반드시 소비자에게 안내해야 하는 '필수통지사항'을 보험가입자에게 휴대폰 문자로 알려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자동차보험금 지급내역서 개선'을 통해 보험사가 보험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때 수리비 등 세부내역을 통보토록 했다고 밝혔다.

지급내역을 알릴 때 통일된 기준이 없어 일부 보험사는 세부내역을 생략하고 전체 금액만을 공개, 소비자가 보험금이 공정하게 산정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일부 보험사들은 민원방지, 분쟁조기종결 등을 위한 목적으로 실제 수리비용 이상의 미수선수리비를 지급하면서 지급내역을 상세히 공개하지 않는다. 이때 소비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오른 보험료를 뒤늦게 발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필수통지사항은 자동차보험 대물배상과 관련한 수리비, 교환가액, 대차료, 휴차료, 영업손실, 시세하락, 비용, 공제액 등 8대 기본항목이다. /김보배 기자 bobae@

"15兆 배당금 푼다"… 배당주 시선고정

외국인들 관심… 대기업, 주주환원 정책 늘려
안전수익 원할땐 ETF·배당주펀드 투자 검토를

"절대 돈을 잃지 마라" 가치투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벤자민 그레이엄이 입버릇 처럼 한 말이다. 그만큼 투자의 대가(大家)도 투자자금에 대한 손실 리스크를 경계했다는 얘기다.

증권가도 연말 배당을 노리고 일찌감치 우량종목을 찾는 투자자로 술렁이고 있다. 국내 증시가 오락가락 하자 가치투자와 방어주적인 성격의 배당주에 시선이 쏠리고 있는 것. 특히 올해는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 배당주가 주목받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분석된다.

26일 와이즈에프앤에 따르면 WMI500 지수 기준 올해 배당성향은 20%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 지수 기준 배당성향(전체 순이익에서 차지하는 배당금액)은 2013년 14%에서 작년에 19.4%까지 올랐다.

한국투자증권 박소연 연구원은 "한국의 배당성향도 매우 오랜만에 올라가고 있다"면서 "극단적인 비중축소 상태였던 한국주식에 외국인이 주목하는 또 하나의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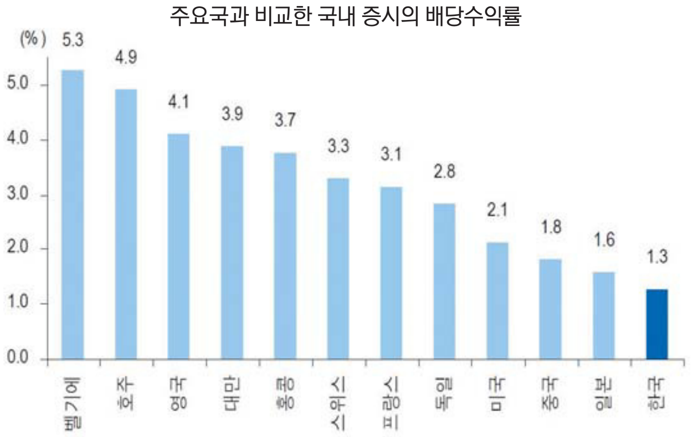
유안타증권은 올해 사상 최초로 기말 배당 유동배당금액 1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일반 시가총액 기준으로 15조5000억원을 초과하는 사상 최대 배당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코스피200지수 기준 배당수익률은 1.52%에 달할 것으로 관측했다.

대기업들의 화끈한 주주 환원 정책도 이어지고 있다. 두 차례 배당을 내년부터 3·6·9·12월 말 등 연간 4회 배당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포스코 측은 "투자자 입장에서 배당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실질 배당수익률이 향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룹 내 임원(상무급 이상) 총 289명은 매달 급여의 10% 이상을



자사주 매입에 쓰기로 했다. 임원들은 이달부터 퇴직할 때까지 매달 포스코, 대우인터내셔널 등 그룹 내 7개 상장사 중 1개사의 주식을 매입한다.

삼성전자·현대차·SK하이닉스 등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이번 3·4분기 실적발표 때 배당확대 정책 등을 내 놓을 것으로 보인다.

오는 29일 실적 발표가 예정된 삼성전자는 자사주 매입·소각 관련 거래소 조회공시 요구에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자사주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상시 검토하고 있으나, 현재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지만 기대감은 큰 상황이다.

SK하이닉스는 최근 2015년 3분기 실적발표 후 진행한 콘퍼런스콜에서 "지난 3월 처음으로 주주환원을 했고 앞으로 배당수준을 꾸준히 늘려갈 것"이라며 "한국 대기업의 배당성향이 15~20%, 배당수익률 2% 수준을 보이는데 일단 이 수준에 도달하는 게 1차 목표"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즌이라고 해서 단기적 안목으로 배당주나 배당주 펀드에 투자하는 건 금물이다.

증시 전문가들은 "배당 관련주들은 실적을 겨냥해 연말까지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통상 11월에 주가가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 때문에 배당을 통해 얻는 수익이 줄어든 차익 수익을 상쇄하고도 남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배당이 높은 기업은 대부분 경기방어주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의 주가 움직임은 그리 활발하지 않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것. 또 배당 수익에 붙는 과세액도 따져 볼 요소다.

배당주 직접 투자가 두렵다면 배당관련 상장지수펀드(ETF)와 배당주펀드 투자로 눈을 돌리는 것도 좋다. 펀드 투자 중에선 배당성장 ETF 성과가 상대적으로 우수하다.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코스피 배당성장 50지수를 추종하는 배당성장 상장지수펀드(ETF)인 '미래에셋TIGER배당성장ETF'와 '삼성KODEX배당성장ETF', '한국투자KINDEX배당성장ETF' 등이 20% 대의 평균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김문호 기자 kmh@metroseoul.co.kr



신한금융투자의 'CMA R+ 카드'가 누적발급 4만장을 돌파했다. 'CMA R+ 체크카드'와 'CMA R+ 신용카드'는 두 카드를 함께 사용하면 최고 7.15%의 고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신한금융투자

신한금투 'CMA R+ 카드' 발급 4만장 돌파

최고 연 7.15% 금리혜택

신한금융투자는 'CMA R+ 카드'가 누적발급 4만장을 돌파했다고 26일 밝혔다.

'CMA R+ 체크카드'와 'CMA R+ 신용카드'는 두 카드를 함께 사용하면 최고 7.15%의 고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저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변동성 위험 없이 높은 금리를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부각되면서 'CMA R+ 카드'의 가입자 추이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0월 현재 누적 발급장수는 4만장을 돌파했고 일평균 발급장수는 200장 이상이다.

특히 'CMA R+ 체크카드'는 신용카드 혜택을 더욱 강화하고, 높은 소득공제율(최고 50%)을 활용해 연말정산도 대비할 수 있는 똑똑한 상품이다. 현대인의 소비패턴에 맞춰 한 달에 50만원만 사용해도 정기예금이자 두 배 수준의 CMA 금리(3.35%)를 제공한다. 사용금액이 증가하면 금리도 올라가는 구조로, 100만원 이상 사용할 경우 제공금리는 4.55%로 훌쩍 뛴다(CMA 금리우대 서비스 적용시).

이밖에 패밀리레스토랑과 커피 최대 30% 할인, CGV 온라인 영화예매 시 7000원 캐시백, GS칼텍스 주유 시 리터당 40원 캐시백, 백화점·할인점·온라인 쇼핑몰 최대 5% 캐시백 등 신용카드 부럽지 않은 풍부한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CMA R+ 카드'는 신한금융투자 전 영업점에서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신한금융투자 홈페이지(www.shinhaninvest.com) 또는 고객지원센터(1588-0365)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보배 기자

나무가 "3D센싱 카메라모듈 시장 선도할 것"

<카메라모듈 업체>

성장성·수익성 겸비
다음달 코스닥 상장

나무가(NAMUGA)가 코스닥 상장을 통해 '3D센싱 카메라 모듈 선도기업'을 향한 청사진을 내놨다.

서정화 나무가 대표는 26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기업공개(IPO)를 공식 선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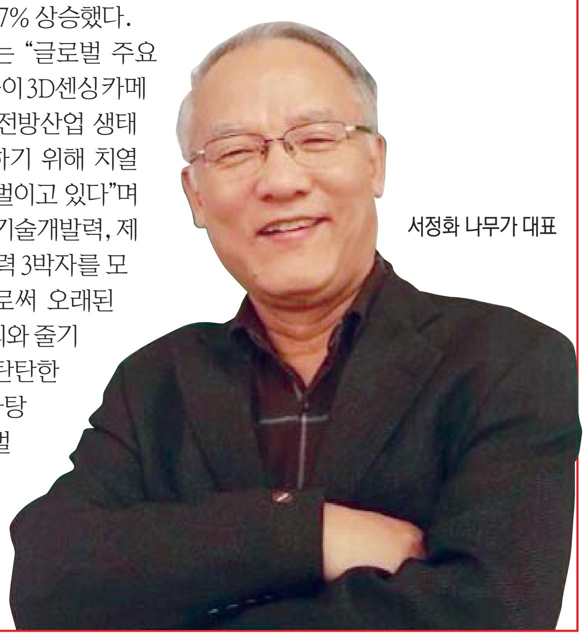
서 대표는 이날 "3D센싱 카메라 모듈 시장은 트렌드 변화를 뛰어넘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부상했다"며 "그동안 축적해 온 3D뎁스센싱 카메라 개발기술과 양산경험을 기반으로 이번 상장을 통해 글로벌 시장지배력을 강화하고, 코스닥 시장의 블루칩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4년에 설립된 나무가는 오디오 무선모듈(WAM)과 노트북과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을 개발·양산하고 있다. 지난 2009년 TOF(Time Of Flight)방식의 3D 카메라 모듈을 최초 개발했다. 지난 2009년 구글 스마트 TV 솔루션 개발에 참여한데 이어 2009년 삼성 TV용 카메라 개발, 2010년 삼성 휴대폰용 카메라 모듈 공급 등 국내외 카메라 모듈 시장을 선점해 왔다.

올해는 세계 최초로 멀티 카메라와 IR센서를 접목한 하이브리드(hybrid) 방식의 뎁스센싱(Depth Sensing) 모듈을 개발해 생산 장비 내재화에 성공했다. 지난 2013년 국내 카메라 모듈 종합연구센터와 시제품 생산라인을 설립했고 지난해 베트남 제조공장을 설립하는 등 생산라인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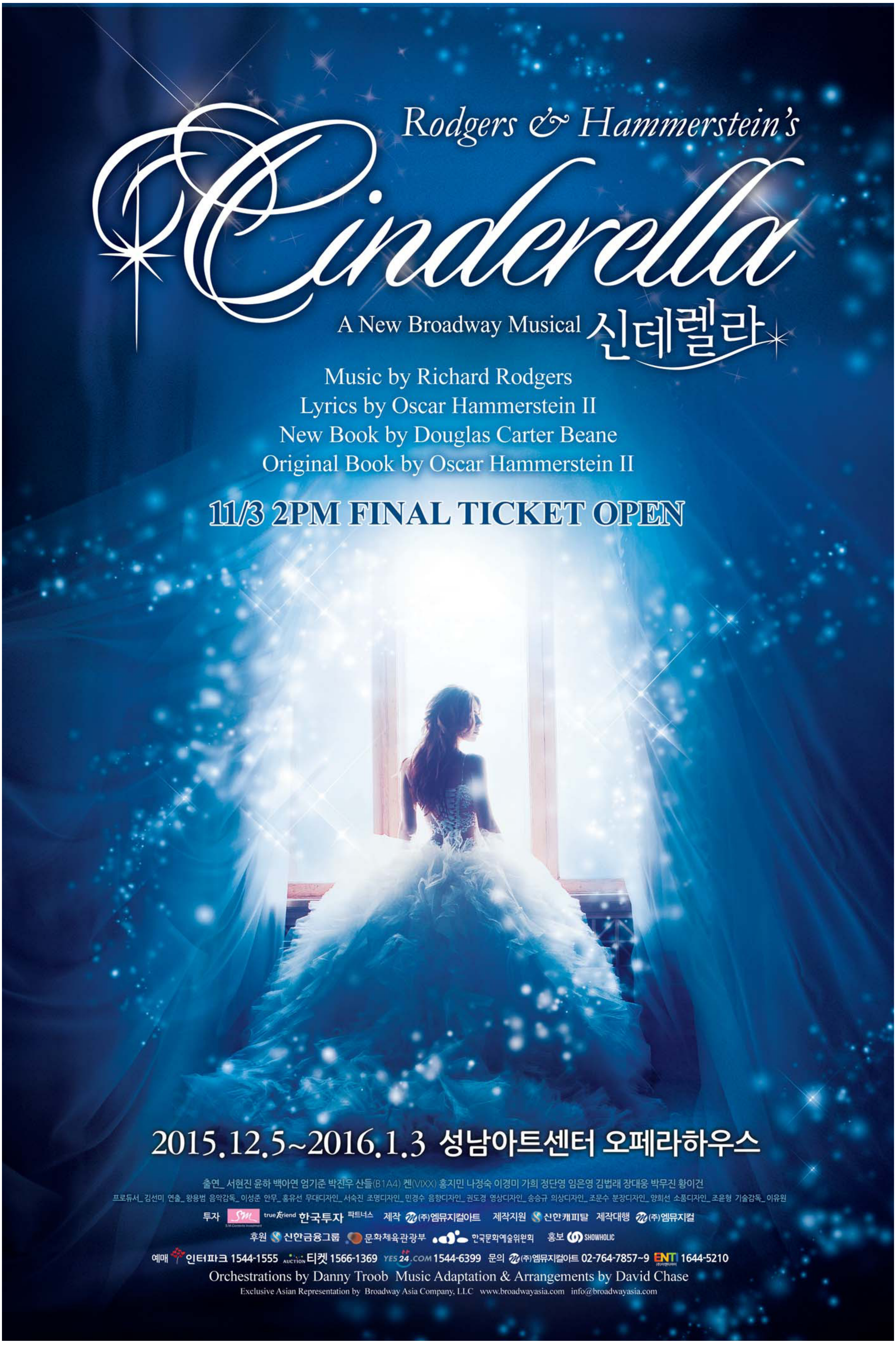
나무가의 올해 상반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1769억원, 10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07%, 37% 상승했다.

서 대표는 "글로벌 주요 플레이어들이 3D센싱카메라 기반의 전방산업 생태계를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나무가는 기술개발력, 제품력, 대응력 3박자를 모두 갖춤으로써 오래된 나무의 뿌리와 줄기 같이 깊고 탄탄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3D 카메라 모듈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화 나무가 대표

나무가는 지난 9월 24일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데 이어 다음달 3일과 4일 공모청약을 거쳐 12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다. 공모예정가는 3만2000~3만7000원으로 구주매출과 신주발행을 병행한 구조로 총 87만8000주를 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한다. 상장 예정 총 주식수는 295만723주, 공모 예정 금액은 280억9600만~324억8600만원으로 상장주관사는 교보증권이 맡았다.

/김보배 기자 bobae@


Rodgers & Hammerstein's
Cinderella
A New Broadway Musical 신데렐라
Music by Richard Rodgers
Lyrics by Oscar Hammerstein II
New Book by Douglas Carter Beane
Original Book by Oscar Hammerstein II
11/3 2PM FINAL TICKET OPEN
2015.12.5~2016.1.3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출연_ 서현진 윤하 백아연 엄기준 박진우 산들(B1A4) 켄(VIXX) 홍지민 나정숙 이경미 가희 정단영 임은영 김법래 장대웅 박무진 황이건
프로듀서_ 김선미 연출_ 왕용범 음악감독_ 이성준 안무_ 홍유선 무대디자인_ 서숙진 조명디자인_ 민경수 음향디자인_ 권도경 영상디자인_ 송승규 의상디자인_ 조문수 분장디자인_ 양희선 소품디자인_ 조윤형 기술감독_ 이유원
투자 SM true friend 한국투자 파트너스 제작 (주)엠뮤지컬아트 제작지원 신한캐피탈 제작대행 (주)엠뮤지컬
후원 신한금융그룹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홍보 SHOWHOLIC
예매 인터파크 1544-1555 AUCTION 티켓 1566-1369 YES24.COM 1544-6399 문의 (주)엠뮤지컬아트 02-764-7857~9 ENT 1644-5210
Orchestrations by Danny Troob Music Adaptation & Arrangements by David Chase
Exclusive Asian Representation by Broadway Asia Company, LLC www.broadwayasia.com info@broadwayasia.com

STX건설 새 주인… 호반이냐? 부영이냐?

시공 능력 30위·국내외 프로젝트 경험 풍부
저렴한 매각가·이월결손금 등 매각 긍정적

매각가 200억~250억원 유력

STX건설이 법정 관리 2년 만인 26일 매물로 나와 새주인 찾기에 나섰다. STX건설이 매물로 나온 것은 지난 2013년 5월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간 지 2년 여만이다. STX그룹 가운데서는 GS E&R(옛 STX에너지), 팬오션(옛 STX팬오션)에 이은 세 번째 공개 매각이다.

STX건설은 2005년 설립된 뒤 국내 시공능력 순위 30권 진입, 해외 건설 시공 경험, 상위 10대 건설사만 보유한 화력발전소 시공경험 등으로 매각이 순조로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2600억원이 넘는 이월결손금이 남아있어 인수후보는 세제상 법인세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는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월결손금은 기업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 발생 후 10년 간 미래에 발생하는 이익에서 결손금을 차감해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완화해 주는 제도다.

업계에 따르면 STX건설 매각 주관사인 삼일회계법인은 이날 매각 공고를 냈다. 삼일회계법인은 11월 중순까지 인수의향서(LOI)를 받은 뒤 11월 말 본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매각 가격은 200억~250억원대로 예상되고 있다. 유력 인수 후보로는 호반건설과 부영 등으로 알려졌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최근 잇따른 중대형 건설사의 인수합병(M&A) 실패는 인수 규모나 향후 불확실성 때문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STX건설의 경우 매각가가 200억원 안팎 수준으로 부담이 없지만 국내 10위권의 건설사만 참여할 수 있는 동해북평화력발전소 등 프로젝트 경험을 확보하고 있어 향후 해당 사업 추진에 유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STX건설은 2005년 설립된 뒤 'STX 칸(KAN)'이라는 아파트 브랜드로 2012년 시공능력 37위 업체로 성장했다. 2012년에는 동해북평화력발전소 관련 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사옥 공사를 수주했다.

해외 수주 부문과 관련해서는 2013년 5월 STX그룹의 유동성위기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가기 전인 같은 해 2월까지 중국 상하이에서 총 6300만 달러 규모의 해외 수주 실적을 달성하는 등 해외 수주에 강점을 나타낸 바 있다.

지난해 매출액은 5881억9722만원으로 2013년 3021억3141만원 대비 2860억6581만원 늘어났다. 반면 같은 기간 영업손실은 11억8974만원으로 2013년 1042억 원에서 크게 줄었다.

한편 STX건설의 모회사인 STX그룹은 구조조정 중이다. 주요 계열사인 STX조선해양은 채권단 공동관리 상태에 있다. STX팬오션은 하림그룹에, STX에너지는 GS그룹의 GS E&R이 인수됐다. STX중공업과 STX엔진도 자율협약 상태다.

/박상길 기자 sweatsk@metroseoul.co.kr

분양단신

중소형 위주 구성… 실수요층 관심 집중

대우건설 '안산 파크 푸르지오'



대우건설은 오는 30일 '안산 파크 푸르지오'(조감도) 견본주택 개관과 함께 일반 분양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성포주공3단지를 재건축하는 안산 파크 푸르지오는 안산 상록구 화랑로 528길에 있다. 지하 2층, 지상 28층~35층 아파트 8개동 규모며 전체 1129가구 중 전용면적 84㎡A타입 225가구, 84㎡B타입 79가구, 84㎡C타입 79가구, 84㎡D타입 34가구, 101㎡타입 3가구 등 420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대부분 전용면적 84㎡ 이하인 중소형으로 이뤄져 실수요층의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 3.3㎡당 평균분양가는 1300만원대 중반에서 책정될 예정이다. /박상길 기자

1차 완판 효과·제2서해안고속道 개발 호재

GS건설 '자이더익스프레스2차'



GS건설이 11월 초 경기도 평택 동삭 2지구 '자이더익스프레스 2차'(조감도) 분양에 나선다. 단지는 아파트 13개동 전용 59~113㎡ 1459가구 규모이며 펜트하우스도 12가구 공급된다. 전용면적별로는 ▲59㎡ 279가구 ▲72㎡ 318가구 ▲75㎡ 104가구 ▲84㎡ 608가구 ▲98㎡ 138가구 ▲103㎡ (펜트하우스) 6가구 ▲113㎡(펜트하우스) 6가구다. 입주는 2018년 9월이다.

GS건설 관계자는 "지난 7월 청약한 자이더익스프레스 1차가 분양 한 달 만에 조기 완판됨에 따라 11월 6일 견본주택이 열릴 예정인 자이더익스프레스 2차 분양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시흥~평택~익산을 잇는 139㎞ 길이의 제2서해안고속도로가 구간별로 개통·공사 중에 있다. /박상길 기자

현대건설, 신도시·택지지구 2235가구 공급

현대건설이 연말까지 수도권 신도시와 택지지구에서 대규모 아파트 공급에 나선다.

현대건설은 최근 견본주택을 오픈한 힐스테이트 에코 문정을 시작으로 일산신도시 힐스테이트 킨텍스와 하남 미사지구 힐스테이트 에코 미사 등 2235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현대건설은 11월 일산신도시에 힐스테이트 브랜드를 첫 선보인다. 지하 4층~지상 49층 4개동 규모이며, 전용면적 84㎡ 단일 주택형 1054가구다.

같은 달 하남 미사지구 중심상업시설부지 14-1, 14-2블록에 '힐스테이트 에코 미사'를 공급한다.

/박상길 기자

수익형 부동산, 배곶·송파·운정 지역 인기

배후수요·편의시설 탄탄
연말 전국서 8217실 공급

연내 분양예정 대단지 오피스텔

위치	단지명	규모(실)	전용면적(㎡)	시기
시흥 배곧신도시	배곧 헤리움 어반크로스	1906	22~40	11월
경남 양산시	신양산 코아루 캠퍼스시티	558	54~94	10월
인천 서구	청라 센트럴 에일린의 뜰	866	45~55	10월
서울 송파구	힐스테이트 에코 문정	531	17~37	10월
광주 광산구	광주수완지구 대방노블랜드	1050	미정	11월
충남 천안시	천안불당 파크 푸르지오	939	미정	11월

* 분양계획은 업체 사정에 따라 분양시기, 공급규모·실수 등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자료: 각 업체

최근 1~2인 가구가 늘고 1%대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수익형 부동산 중 오피스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여유자금을 굴리려는 투자자와 전세난을 피해 내집마련을 하려는 수요자가 오피스텔로 몰리는 모양새다. 오피스텔 단지는 배후 수요나 교통 여건 위주로 지어져 입주민의 편의 시설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대단지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최근 아파트에서나 누릴 수 있는 조경이나 각종 주민 커뮤니티 시설을 갖추고, 관리비까지 저렴해 주목받고 있다.

현대산업개발이 지난 4월에 분양한 '영통역 아이파크'는 4층과 16층에 야외테이블을 갖춘 테라스 가든을 설치해 관심을 끌었다. 오피스텔 666실 모집에 3603건이 접수돼 평균 5.41대 1로 전 타입이 1순위에서 마감됐다.

한화건설이 6월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 선보인 '킨텍스 꿈에그린' 오피스텔은 1100가구와 전용면적 84㎡의 오피스텔 780실로 구성된 복합단지에 탁구장과 헬스장, 골프연습장, GX룸 등 '원스톱 라이프' 시설로 수요층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780실 공급에 2만2121명이 몰려 평균 28.3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계약 시작 3일 만에 완판됐다.

이 같은 인기에 하반기 공급 물량이 이어질 전망이다. 부동산정보업체인 '부동산114'에 따르면 연말까지 전국에서 오피스텔 8217실이 공급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수도권 5778실, 충남 939실, 대전 612실, 제주 372실, 부산 299실 등이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문정지구, 마곡지구, 인천 청라국제도시, 경기 광명역세권지구 등 주요 택지지구와 신도시에 공급된다. 지방에서는 천안 아산탕정지구와 대전 대덕테크노밸리, 제주시 연동 등에 공급이 예정돼 있다.

현대건설은 지난 23일 힐스테이트 에코 문정 견본주택을 열고 전용 17~37㎡ 오피스텔 531실 분양에 들어갔다. 천장 높이 3.2m의 복층형 타입, 테라스형 타입 등 특화 설계가 도입됐다. 'ㅈ'자형의 독특한 구조로 지어 인접 건물들과의 간섭, 사생활 침해 등도 최소화했다.

아이에스동서도 같은 날 청라국제신도시에서 아파트 1163가구와 오피스텔 866실로 구성된 '청라 센트럴 에일린의 뜰' 분양에 돌입했다. 오피스텔은 전용 45~55㎡ 중소형으로 이뤄졌으며 3-베이 타입(거실 1개 방 2개)에 복도식이 아닌 계단식으로 설계됐다.

대우건설은 다음달 천안시 불당동 아산탕정지구 복합 2·3블록에 '천안 불당 파크 푸르지오' 오피스텔을 분양할 계획이다.

오피스텔 939실과 아파트 510가구(전용면적 미정)로 구성된다. 수도권 지하철 1호선 장항선·KTX역인 천안아산역이 가깝고 주변에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캠퍼스와 아산탕정농공단지 등이 있다.

/박상길 기자

9월 미분양 3만2524가구
전월대비 2.6% 늘어나

전국 미분양 주택이 3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국토교통부는 9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이 3만2524가구로 전월 대비 2.6%(826가구) 늘어났다고 26일 밝혔다. 수도권은 1만4549가구로 8월 1340가구에 비해 8.4% 줄어들었지만 수도권 외 지역이 1만7975가구로 13.7%(2166가구) 증가해 전체 미분양주택수는 증가했다.

지방 미분양의 52.3%는 충남에서 발생했다. 천안 2곳·당진 2곳·서산 2곳 등 6곳에서 1900여 가구가 미분양됐다. 규모별로는 85㎡ 이하가 8월보다 1237가구 증가한 2만5122가구, 85㎡ 초과 중대형은 411가구 감소한 7402가구가 미분양됐다.

한편 준공 후 미분양은 전월(1만1845가구)보다 3.1%(368가구) 감소한 1만1477가구로 집계됐다.

/박상길 기자

두타에 지역상생형 면세점 새 모델 구축

면세점 2차 대전… 두산그룹 ②

'동대문 미래창조재단' 설립
상권 활성화·균형발전 목표

유치땐 중기제품 50% 구성
이익 20%까지 사회에 환원

두산그룹은 소상공인과 중소 패션 업체 등 주변 경제주체들이 참여함으로써 지역 상권이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상생형 면세점'을 구상중이다.

26일 두산은 지역상생형 면세점을 구체화하기 위해 200억원 규모의 '동대문 미래창조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은 두산이 100억원, 박용만 두산 회장이 사재 100억원을 각각 투자했다. 이 재단은 동대문 상권 활성화와 동대문 지역 균형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두산은 재단의 운영기획·총괄, 재원 투자 등을 담당하게 된다.

이날 두산은 서울 중구 두산타워(두타)에서 평화시장 소상공인, 정치인, 지방자치단체장, 패션 디자인업계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대문 미래창조재단 출범식을 진행했다.

박 회장은 "동대문 미래창조재단 출범시기가 면세사업자 선정과 맞물려 있어 면세 특허권을 위한 전략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지만 부인하지 않겠다. 면세사업자 선정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하지만 동대문 상권 발전에 대해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이번 재단 운영을 통해 구체화 시키고 동대문이 최고의 상권이 될 수 있도록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지역상권과 동반성장 약속

두타 인근 평화시장에는 의류, 액세서리, 아동복 등 다양한 상품을 파는 2000여개의 점포가 들어서 있다. 5000여명의 경제인구가 이곳 평화시장에서 일하고 있다. 이날 현부용 평화시장 대표를 비롯한 상인 수십여 명이 두타를 찾은 이유도 동대문 미래창조재단의 시작에 함께하기 위해서다.



26일 서울 동대문 두산타워에서 열린 동대문 미래창조재단 출범식에서 박용만 두산그룹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두산그룹

현 대표는 "동대문 미래창조재단 설립을 시작으로 동대문 상권이 활력을 되찾고 많은 패션 종사자가 꿈을 펼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두산은 면세점 유치 시 2020년까지 중소·중견기업 제품 비율을 50%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또 면세점 이익의 20%까지 사회에 환원할 방침이다. 두타면세점은 9개 층에서 1만7000㎡ 규모로 운영된다. 매출은 내년 5월 운영을 시작으로 첫해 5000억원, 이듬해 1조원 이상을 바라보고 있다.

◆동대문 상권 부활 예고

두산 측은 동대문 미래창조재단 운영으로 최근 주춤했던 동대문 상권이 되살아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대문관광특구협의회에 따르면 2002년 16조4000억원에 달했던 동대문 상권의 매출은 상권이 점점 축소돼 2014년 12조4000억원으로 줄었다.

이윤석 두산 상무는 "동대문 상권의 무한한 가능성이 제대로 발현되지 못한 이유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동대문을 옷 몇 벌 사기위해 잠시 머무는 곳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동대문이 패션뿐만 아니라 관광명소로도 거듭나도록 동대문 미래창조재단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두산 측은 재단을 ▲동대문 씽크탱크 ▲동대문 마케팅 ▲브랜드 액셀레이터 등 세 분야로 나눠 운영한다. 동대문 씽크탱크는 동대문 지역 발전 모델을 개발하고 제안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전문가와 동대문 발전 프로젝트를 진행, 공청회 등을 통해 아이디어를 공유하게 된다.

동대문 마케팅은 관광, 쇼핑, 음식, 문화 등 동대문의 매력을 수집해 체계적인 방식으로 알리는 데 앞장서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재단은 동대문 정보 웹사이트 구축, 모바일 앱 개발에 나설 예정이다.

브랜드 액셀레이터는 패션계 스타트업 육성이 골자다. 신진 디자이너를 발굴해 작업 공간, 자금, 마케팅, 홍보 등을 지원하겠다는 것.

박 회장은 "동대문 상권은 어느 곳과 비교해도 모자라지 않는 관광자원을 갖고 있고 상업요소도 모두 갖춰 잠재력이 많은 곳"이라며 "동대문 상권이 활성화되면 주변 상권의 공실률도 줄어들 것이고 이에 따른 채용규모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기 기자 yonggi@metroseoul.co.kr

"통큰 롯데"… 신동빈 종잣돈 창업 펀드 1000억 조성

스타트업 지원 그룹차원 확대
투자법인 '액셀러레이터'설립
초기 자금·각종 인프라 지원

롯데그룹이 청년창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투자법인인 '롯데 액셀러레이터'를 설립하고 1000억원 규모의 투자금을 조성한다.

26일 롯데에 따르면 롯데 액셀러레이터는 스타트업에 초기 자금, 각종 인프라, 멘토링 등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초기 자본금 조성에 100억원을 사재 출연한다.

롯데는 백화점, 면세점 등 계열사에서 간헐적으로 진행해 오던 스타트업 지원을 그룹차원의 사업으로 확대해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 초 설립 예정인 투자법인을 통해 창업자금은 물론, 롯데의 다양한 인프라를 활용한 전방위적 지원으로 향후 3년간 100개 이상의 우수 스타트업을 육성할 방침이다.

청년 창업가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최적의 시스템을 구축해 유통, 서비스,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혁신적인 스타트업을 배출할 계획이다.

창업 초기단계에서는 창업자금, 사무공간 지원을 비롯해 롯데 임원진·팀장, 창업 전문가들의 1:1 멘토링을 제공한다. 특히 면세점, 백화점, 마트, 온라인몰 등 다양한 유통채널을 통해 사업 아이디어를 실제로 적용·실행해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협력해 지역 특화사업에 대해서도 지원할 방침이다.

이후 스타트업 성장단계에서는 롯데가 직접 투자는 물론, 국내외 벤처캐피탈의 투자유치를 통해 사업자금 확보를 돕는다. 또한 롯데의 온·오프라인 유통채널을 통해 판로를 지원하고 다양한 사업과 협업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장기적으로는 스타트업이 성장해 성공적인 투자회수를 할 수 있도록 M&A(인수합병), 글로벌 사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롯데는 사업추진을 위해 초기자본금 300억원을 우선적으로 조성한다. 신 회장이 사재 100억 원을 출연하고 주요계열사를 통해 200억원을 조성한다. 이후 외부 투자유치 등을 위해 1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다음 달 중순께 50여개 스타트업과 국내 기존의 우수 액셀러레이터를 초청해 청년창업과 관련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 컨퍼런스에서는 각 스타트업의 기업설명·스타트업 발전에 대한 다양한 방안 논의를 비롯해 롯데 액셀러레이터 사업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스타트업의 의견을 청취해 프로그램에 반영할 계획이다.

롯데는 그 동안 유통 계열사를 중심으로 우수 스타트업을 지원해왔다. 최근에는 뷰티 이커머스 스타트업 '미미박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8월 롯데백화점 본점 영플라자를 시작으로, 주요 점포에서 순차적으로 팝업스토어를 진행해 브랜드 마케팅을 지원해오고 있다. 롯데면세점은 온·오프라인을 통한 판로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롯데 측은 "국내뿐만 아니라 괌, 오사카, 자카르타 등 롯데면세점의 글로벌 채널을 통해 해외 판로개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신 회장은 "롯데 액셀러레이터 사업을 중심으로 청년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 고용창출·창조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 연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기 기자



신세계면세점 기자간담회

26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신세계그룹 면세점 계열사 신세계디에프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설명회에 참석한 성영목 신세계디에프 사장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aT-제휴사 연계

김장용 절임배추 예약판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해썹(HACCP·식품안전관리인증) 인증업체 등과 협력하고 CJ오쇼핑, 쿠팡 등과 연계해 이달 27일부터 소비자와 기업 대상 김장용 절임배추 예약거래 행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되는 배추는 지난 3년간 예약거래에서 연속으로 소비자들의 큰 호응을 얻은 함평산 절임배추를 비롯해 강원·충남·전남 등 지역 산지별로 다양한 절임배추로 구성됐다. 김장양념, 김장용 소금과 젓갈, 굴 등도 일부 시범적으로 판매할 예정이다.

공급가격은 택배비를 포함해 절임배추 1상자(20kg·8~11포기)에 2만5900원~3만2900원, 김장양념은 5kg당 3만2000원, 김장용 소금은 20kg에 1만5900원이다. aT에 따르면 이는 올해 김장철 시장추정가격 대비 약 20~30% 저렴한 가격으로 올해 시장추정가격은 20kg 기준 2만8000원에~4만2000원 정도로 전망되고 있다.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전예약 주문기간은 이달 27일부터 내달 27까지로 aT사이버거래소 직영 쇼핑몰과 CJ오쇼핑 오클락 오마트, 쿠팡 등 소셜 커머스에서 주문 가능하다. 내달 9일부터 순차적으로 배송되며 총 공급량은 200톤이다. /김성현 기자 minus@

동남아 '펩시' 열풍…롯데칠성 싱글벙글

미얀마서 코카콜라보다 인기
올 3·4분기 누적매출 10%↑

롯데칠성음료가 동남아 시장에서 펩시콜라의 선전에 웃었다.

지난 2010년 필리핀 펩시를 인수하며 동남아 시장에 첫발을 디딘 롯데칠성음료는 지난해에는 미얀마에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펩시 유통에 나섰다. 동남아 지역은 코카콜라에 비해 펩시콜라의 시장점유율이 높은 국가가 많은 것으로 알려진 지역이다.

26일 미얀마 양곤의 음료 유통업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미얀마 일부 지역에서는 펩시의 인기가 코카콜라를 넘었다고 설명했다. 탄산음료의 경우 동일한 제품군인경우 먼저 시장을 선점한 기업의 점유율이 좀처럼 뒤바뀌지 않는 것을 감안할 때 이례적인 일이다.

이 음료 유통업자는 "기존에 아시아(Asia), 샤크(Shark), 레드불(Redbull) 등 단맛의 에너지 음료가 인기를 얻었지만 최근 들어 펩시의 인기가 치솟고 있다"며 "(고객들이)코카콜라에 비해 톡쏘는 탄산 특유의 특징이 적고 달콤한 맛의 탄산음료를 선호하는 것 같다. 올해는 매장마다 10~20%정도 납품 물량을 늘리고 있다"고 말했다.



미얀마 양곤에 위치한 한 마트의 진열대 모습. 이 마트에서는 펩시콜라의 수요가 코카콜라보다 많아 더 많은 양을 진열해 두고 있다. /김성현 기자

동남아 음료시장 관계자들은 톡쏘는 맛보다 단 맛을 선호하는 동남아에서는 코카콜라보다는 펩시의 경쟁력이 더 높다고 입을 모은다.

미얀마의 음료시장 규모는 연간 약 1600억원 수준이며 매년 두 자리의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롯데칠성음료는 지난해 1월 29일 미얀마 현지기업과의 합작법인 '롯데-MGS 베버리지'를 설립했다. 이 합작법인을 통해 펩시콜라, 미린다 등을 유통하고 있다.

합작법인 설립 2년차인 롯데칠성음료는 이미 미얀마 합작법인 매출 신장률을 실감하고 있다. 미얀마 합작법인의 올해 3·4분기까지 매출은 전년동기대비 250%나 늘었다. 연말까지는 300% 성장이 가능할 전망이다.

필리핀에서도 펩시 신화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10년 필리핀 펩시(PCPPI)의 지분 34.4%를 인수해 펩시콜라 판매를 시작한 롯데칠성음료는 이듬해 5204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매년 두자리 수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롯데칠성음료에 따르면 올해 3·4분기까지 누적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 10% 상승했다.

성공적인 동남아 진출로 올해 롯데칠성음료의 해외매출 비중도 증가가 예상된다. 주류 사업 또한 미국, 일본, 서부 아프리카 등지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동남아에서 펩시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어 매년 두 자리수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미얀마 시장에서의 펩시의 성장은 경이롭다"며 "현재까지 추가적인 동남아 진출 계획은 없지만 사업 성과에 따라 얼마든지 가능성은 열려있다"며 동남아 시장을 눈여겨보고 있음을 시사했다.

/김성현 기자 minus@metroseoul.co.kr

"할로윈 홈파티, 어렵지 않아요"

의상·장식·음식까지
유통가 DIY 상품 봇물

10월의 마지막 날에 돌아오는 할로윈 데이는 서양의 축제지만 몇년전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명절 못지 성대한 행사가 열린다. 아이들 뿐만 아니라 젊은 층을 겨냥한 할로윈 이벤트도 다양하다. 최근에는 집에서도 할로윈 분위기를 즐길 수 있는 할로윈 홈파티 문화도 주목받고 있다.

2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할로윈 홈파티족을 겨냥한 제품이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다. 할로윈 분위기가 물씬 나는 의상부터 데코레이션 장식, 음식까지 DIY 할로윈 홈파티 상품으로 유통업계는 10월말 특수까지 기대하는 분위기다.

할로윈 데이는 기괴하게 변장하는 풍습에서 유래됐다. 이 날 하루는 자신의 본래 모습을 감추고 코스튬 복장을 활용해 유령이나 마녀, 유명인, 인기 애니메이션의 주인공 등으로 자유롭게 변신해 보는 것도 할로윈의 즐거움을 배가시키는 방법이다. 홈플러스는 할로윈을 기념해 31일까지 아동들을 위한 '할로윈 이색 상품 기획전'을 진행한다. 다양한 할로윈 소품, 코스튬(Costume)을 1000원부터 4만원대의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홈플러스는 할로윈데이 31일까지 아동들을 위한 할로윈 소품과 코스튬을 1000원부터 4만원대까지의 가격대로 마련, 다양한 상품을 판매한다. /홈플러스

호박이나 해골처럼 할로윈을 대표하는 상징이나 검은색, 주황색 등의 소품을 활용하면 파티 분위기를 한층 살릴 수 있다. 특히 할로윈 데이의 대표 장식품인 '잭-오-랜턴(Jack O'Lantern)'을 직접 만들어 개성 넘치는 할로윈 분위기를 연출할 수도 있다. 의상이나 소품 만들기가 번거롭다면 스투피드(www.stupid.co.kr), 조이파티(www.joyparty.co.kr), 파티앤데이(www.partynday.com) 등 전문 쇼핑몰들을 통해 구입해도 좋다. 할로윈 홈파티에 빠질 수 없는 베이킹도 조금의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다면 초보자도 어렵지 않게 완성할 수 있다.

할로윈의 느낌을 살려 직접 꾸민 쿠키나 컵케이크, 초콜릿 등은 만드는 과정에서 홈파티의 재미를 더하고 할로윈 분위기를 내는 역할까지 톡톡히 한다. 홈베이킹 기업 브레드가든은 온라인 공식 쇼핑몰인 '브레드가든몰(www.ezbaking.com)'을 통해 할로윈 베이킹 재료와 관련 레시피를 소개하는 특별 기획전을 진행한다.

/유현희 기자 yhh1209@

까사미아, 내달 13일까지 최대 40% 할인

인테리어 브랜드 까사미아(대표 이현구)의 온라인·홈쇼핑 브랜드 '까사온'이 내달 13일까지 '빅 프레젠트, 빅 세일'(BIG PRESENT, BIG SALE) 기획전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기획전은 소파, 장롱, 침대를 구매하는 고객에게 베스트 셀링 소가구를 함께 증정하는 행사로 유명 온라인 쇼핑몰에서 함께 진행된다.



또 기획전 기간 동안 까사온의 인기 제품을 최대 40%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김성현 기자

이케아, 내달 중 '라티오 컬렉션' 선봬

이케아 코리아가 내달 중 라티오(LATTIO) 컬렉션'을 선보인다고 26일 밝혔다. 라티오 컬렉션은 아이와 어른이 함께 할 수 있는 놀이에 대한 영감을 주는 제품으로 구성돼 있다. 실내·외에서 할 수 있는 활동적인 놀이, 장난감 악기로 하는 음악놀이, 역할놀이 등을 돕는 제품으로 구성됐다.

이번 컬렉션은 드림웍스 애니메이션이 참여해 제작한 25개의 단편 애니메이션 영상과 함께 소개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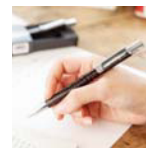


'라티오 컬렉션' 구성품 중 퍼즐제품의 완성 이미지. /이케아 코리아

라티오 컬렉션은 내달부터 이케아 광명점에서 판매된다. /김성현기자

새로 나왔어요

모나미, 작가 에디션 출시
헤밍웨이·카버 볼펜 한정 판매



모나미가 출판사 문학동네와 함께 어니스트 헤밍웨이, 레이먼드 카버 볼펜을 각각 1500개 한정 출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볼펜 클립에는 작가의 이름이 각인됐고 제품 케이스에는 소설 속 명대사를 담았다.

한정판 에디션은 알라딘 홈페이지에서 문학동네 세계문학전집 1권 이상 구매 시 7700원에 구입할 수 있다. 레이먼드 카버 에디션은 내달 출시된다. /김성현 기자

세븐일레븐 '어벤져스 피규어'
내달 1일부터 25만개 단독 판매



세븐일레븐은 어벤져스 피규어 컬렉션 10종을 내달 1일부터 단독 한정 판매한다고 26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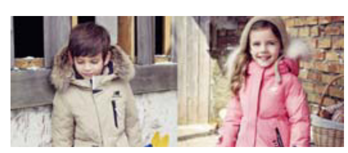
세븐일레븐이 선보인 어벤져스 피규어는 미국 마블사 공식 라이센스 상품으로 4000개 점포에서 총 25만개 한정 판매할 계획이다. 판매 점포는 세븐일레븐 홈페이지(www.7-eleven.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용기 기자 yonggi@

KGC인삼공사 '홍삼정로얄 투어에디션'
유커 겨냥 관광명소 8곳 삽화로



KGC인삼공사는 한국을 찾는 외국 관광객들을 위한 선물용 홍삼인 '홍삼정로얄 투어에디션'을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홍삼정로얄 투어에디션'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기념품인 6년근 홍삼 농축액에 성산일출봉, 설악산 등 한국의 관광명소 8곳의 삽화를 삽입했다. 면세점에서만 판매하며 유커(중국인)가 선호하는 숫자 '8'을 활용해 홍삼정로얄 30g 8병으로 구성했다. /유현희 기자



뉴발란스 키즈, 구스다운 2종
3M 포인트로 안정성 극대화

뉴발란스 키즈가 겨울 필수 방한 아이템인 구스다운 '하이디 다운'과 '허스키 다운'을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뉴발란스 키즈측은 이번 신제품이 브레더블 코팅으로 물방울은 막고 땀은 배출해 쾌적함을 유지하며 3M포인트를 통해 눈이나 비가 와도 야간활동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안정성을 극대화 했다. /김성현 기자

서울시 – 지역난방공사 '나눔주택사업' 맞손

빈집 고쳐 취약층 보금자리로

6개월 이상 방치된 집 대상 맞춤형 민간임대 리모델링



이기만 한국지역난방공사 부사장(오른쪽 다섯 번째)과 정유승 서울특별시 주택건축국장(오른쪽 여섯 번째)이 26일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를 공동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서울시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시사업에 민간기업의 사회공헌사업을 접목한 새로운 형태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인 '나눔주택사업'을 본격화한다.

26일 서울시는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함께 2018년까지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를 공동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사업을 추진하고, 기업은 기부금을 지원하는 방식의 민관협력형 주거환경개선 프로젝트다.

해당 프로젝트는 6개월 이상 방치된 빈집을 신청받아 어르신, 대학생, 여성 등을 위한 맞춤형 민간임대주택으로 리모델링해 저소득 가구에 시세의 80% 수준으로 최소 6년간 저렴하게 제공하는 시책사업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연간 1억 원씩 총 4억원의 사회공헌기금을 서울시에 기부하며, 빈집 리모델링 시공시에는 임직원이 자원봉사에 참여한다.

서울시는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주거취약계층 지원' '고시원 소방안전시설 강화' '서울형 저에너지 주택짓기' '임대주택 안심리모델링 지원' '공동주택 커뮤니티 지원' 등 6개 사업을 나눔주택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3월부터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를 구체화한 서울시는 사회적기업과 주택협동조합 등 5개소를 선정했고, 현재 11개 동을 리모델링 중이다. 또 지난 8일 자로 '서울특별시 빈집 활용과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공표돼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빈집을 소유하고 있는 시민은 서울시 주택정책과(2133-7026)로 사업 신청 가능하고, 입주 희망자는 각 자치구 주택관련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주거불안 속에 민관협력을 통한 사회공헌사업 확대를 통해 시 예산을 절감하는 한편, 주거안정 효과는 배가시키도록 하겠다"며 "방치된 빈집에 온기를 불어넣어 자원을 재활용하고, 임대주택도 공급하는 일거양득 사업인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를 활성화해 주거난이 심각한 시기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탈모 전, 판시딜로 영양공급 하세요

동국제약 '판시딜'

6가지 천연성분 배합 모발 성장 효과 탁월



가을은 모발이 가장 많이 빠지는 계절이다. 여름철 무더위를 겪으면서 쌓였던 신체적 스트레스가 탈모 증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26일 동국제약(대표이사 이영욱)은 올해 9월 시장조사기관인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20~50대 성인 남녀 250명을 대상으로 벌인 '탈모 관리 및 치료에 대한 소비자 인식'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성인 남녀의 65.2%가 '탈모 증상을 경험했다'고 답변했다. 특히 30~40대의 탈모 증상 경험률이 73.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 20대 탈모 증상 경험률이 45.2%로 나타나 젊은 층에서 초기 탈모 관리의 필요성이 다시 한 번 부각됐다.

탈모 증상 경험자의 66.9%는 '모발이 가늘어지고 정수리를 중심으로 탈모 부위가 주변부로 확산하는 탈모유형(확산성탈모)'이라고 답변했다. 특히 여성이 73.1%, 남성이 61.2%가 해당된다고 답해 확산성 탈모가 성별과 관계없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치료방법으로는 기능성샴푸 사용이 72.6%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전문 두피관리숍(17.0%), 의약품(16.0%) 순으로 나타났다.

동국제약 마케팅 담당자는 "탈모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관심을 갖고 원인에 따라 적합한 치료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며 "판시딜처럼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된 의약품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국제약 판시딜 캡슐(사진)은 모발과 손톱의 구성 성분인 케라틴, L-시스틴 등과 영양 성분인 비타민, 약용효모 등 6가지 천연성분이 배합돼 있어 모발의 성장과 영양 공급에 효과적이다.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바로 구입할 수 있으며 하루 세 번 1캡슐씩 3~4개월 동안 복용하면 된다. /신원선 기자

전주 한옥마을서 '웃음 바이러스' 심는다

관광公 'K스마일 캠페인'

친절문화 확산·정착 팔 걷어


친절문화 확산을 위한 'K스마일 캠페인' 홍보 행사가 25일 전주 한옥마을에서 열린 가운데 정창수 한국관광공사 사장을 비롯해 김승수 전주시장, 한경아 한국방문위원회 사무국장이 거리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공사는 전라북도, 전주시, 한국방문위원회와 공동으로 25일 전주 한옥마을에서 쇼핑업계·관광업계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범국민적 친절문화 확산을 위한 'K스마일 캠페인' 홍보 행사를 개최했다.

정창수 한국관광공사 사장을 비롯해 김승수 전주시장, 한경아 한국방문위원회 사무국장 등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전주 한옥마을을 방문한 내·외국인 관광객 대상으로 거리 홍보와 한옥마을 내 업계 담당자 대상 친절 에티켓 안내, SNS 홍보 이벤트 등으로 꾸며졌다.

"한국이 웃으면 세계가 웃어요"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되고 있는 'K스마일 캠페인'은 숙박·교통·음식 등 관광업계를 중심으로 서비스 교육 강화와 수용태세 개선을 통해 환대의식을 제고하고 친절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으로 관광분야와 유관업계를 중심으로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신원선 기자

SH공사,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 시범실시

내달 2일부터 임대인 모집

SH공사가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임대인을 모집한다.

서울시 SH공사(사장 변창흠)는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시범시행해 11월 2일부터 본인 소유 주택에 대한 임대관리 위탁을 희망하는 임대인을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공사가 임대인에게 매월 관리수수료를 받고 주택관리 업무를 대행하면서 무주택 저소득 임차인에게 임대료의 1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임대보증금 기준 1억8000만원 이하인 서울특별시 소재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정비사업구역 내 주택과 법률상 제한사유가 있는 주택은 제외된다. 주택임대관리계약이 체결되면 임대인은 월세로 전환된 임대보증금과 월세의 3%(부가가치세 별도)를 공사에 매월 납부해야 한다.

오는 11월 2일부터 13일까지(토·일 제외) SH공사 본사에서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선정 결과는 11월 20일 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선정자에게는 개별 통보한다. 계약은 27일까지 해당 주택 소재 주거복지센터에서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SH공사 홈페이지(www.i-sh.co.kr)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SH공사 콜센터(02-1600-3456)에 문의하면 된다. /신원선 기자

생산에서 유통까지… '원스톱' 공예

서울 '공예클러스터' 조성 창업·체험 등 전 과정 지원

서울시가 인사동~북촌~삼청동 일대에 생산부터 유통까지 원스톱으로 공예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공예클러스터'를 조성한다.

26일 서울시는 한국인의 '솜씨'를 기반으로 한 고부가가치 창의산업이자 노동집약 산업인 공예문화산업을 거점별 공예클러스터로 조성해 집중 육성, 일자리를 창출하고 관광 상품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공예산업은 개인의 창의성과 소재, 기법, 문양 등 문화적 요소를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따라 무궁무진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창의산업이다. IT,디자인 등 다른 산업 분야와의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산업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산업분야다. 하지만 현재 국내 공예산업의 80%는 개별 공방 운영으로 제작과 유통을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형태이다보니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한 공방이 대다수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서울시는 유통에 어려움을 겪는 1인 공방을 한곳에 모아 '규모의 경제'를 이끌어내는 게 급선무라고 판단했다. 재료 구입부터 창업, 제작, 유통, 판매, 교육, 체험에 이르는 전 과정이 지역거점 안에서 원스톱으로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16년 가시화될 제1호 서울 공예클러스터는 150여 개 공방이 밀집된 인사동~북촌~삼청동에 조성되며 이후 센터 운영이 활성화되면 관광객이 많은 동대문디자인플라자와 남산한옥마을을 비롯해 연남동, 성북동 역사문화지구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신원선 기자

안나수이 소공동본점 리뉴얼

360도 전 방향서 테스팅 가능



안나수이가 롯데백화점 소공동 본점 매장(사진)을 새 단장했다.

안나수이는 소공동본점의 안나수이 매장을 디자이너 안나수이의 집에서 영감을 받아 리뉴얼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매장은 화려한 빈티지 스타일의 가구와 17~18세기 유럽에서 유행한 중국풍 패턴 벽지, 특유의 색감으로 포인트를 준 레드도어가 적용됐다. 고객들이 안나수이 제품을 좀 더 쉽게 찾고, 테스트할 수 있도록 360도 모든 방향에서 테스팅이 가능하도록 편의성도 높였다.

/유현희 기자 yhh1209@

일상의 동작도 춤 같을 때가 있죠

새 미니앨범 낸 한희정

느림과 춤. 언뜻 보면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다. 그러나 한희정(36)은 "역동적인 동작을 느리게 펼쳐놓을 때 춤처럼 느껴지게 하는 지점을 찾고 싶었다"고 했다. 한없이 느리지만 그 속에서 느껴지는 리듬감, 한희정의 새 미니앨범 '슬로우 댄스'를 가장 잘 표현하는 말이다.



2년 만에 발표한 '슬로우 댄스'
'느림'을 주제로 만든 5곡 수록
느긋한 마음으로 꾸준히 작업
음악으로 다양한 작업 하고파

'슬로우 댄스'는 2년 전 나온 정규 2집 '날마다 타인'과는 또 다른 정서를 담고 있다. 전작이 다소 실험적이었다면 이번 앨범은 정적이면서도 편안한 분위기다. 몸을 소재로 삼은 앨범 커버와 사진에서도 그런 정서를 잘 느낄 수 있다. 타이틀에 담긴 '느림'은 이번 앨범을 대표하는 이미지다.

"발라드처럼 느린 노래를 만들면 어떨지 궁금했어요. 그냥 음악만 느린 것은 재미없을 것 같았어요. 주제를 '느림'으로 정하고 여러 가지 느린 것들에 대해 노래해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제목을 아예 '슬로우 댄스'로 정해서 작업을 했어요. 물론 제 노래가 대부분 템포가 빠른 편은 아니에요. 그래도 '느림'을 콘셉트로 앨범 작업을 하니 또 다른 느낌이 들더라고요."

앨범 타이틀과 동명의 곡인 '슬로우 댄스'는 어느 연극을 본 뒤 느낀 경험이 바탕이 됐다. "댄스가 꼭 춤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고의 움직임처럼 생각되기도 해요. 예전에 일본 연극을 본 적 있어요. 일상생활의 의미 없는 동작을 보여주는데 그게 춤이 아니면서도 재미있더라고요. 그런 걸 이야기해보고 싶었어요." 지난 2집 타이틀곡 '흙'에 이어 '슬로우 댄스'도 뮤직비디오를 직접 연출했다. 음악 작업을 하면서 떠오른 영상과 이미지를 구체화시킨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작업이었다.

한희정은 지금 인디 신을 대표하는 싱어송라이터다. 그러나 처음부터 가수를 꿈꾼 것은 아니었다. 그저 음악을 하고 싶었을 뿐이다. 그렇게 한희정은 밴드 더더와 푸른새벽을 거쳐 솔로로 활동을 하며 2장의 정규 앨범과 3장의 미니 앨범을 디스코그래피에 채우게 됐다. 누군가에게는 부러울 수 있는 음악 여정이다.

그러나 한희정은 "앞으로 가야할 길이 까마득한데 지금까지의 일들을 돌아보지는 않는다"며 웃었다. "아직도 어디로 갈 지 모르겠어요. '나 어디로 갈까?'라는 생각으로 계속 작업하고 있죠." 그는 "마음은 느긋해도 행동은 빠릿빠릿하게 해야 하는데 나는 반대인 것 같다"고 말했다. 느긋함이야 말로 한희정 음악의 매력이다. 새 미니앨범을 낸 한희정은 내년 1월 31일로 예정된 단독 공연을 위해 차근차근 준비 중이다.

"음악·영화·책 등이 다 별개의 작업 같지만 예술이라는 점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봐요. 제가 뮤직비디오를 찍는 것을 '도전'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지만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다 맞물리는 지점이 있으니까요. 지금 노래를 하는 내가 궁극적인 내 모습이 아니라는 생각도 있었어요. 하지만 최근에는 지금의 모습도 저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봐요. 노래를 하는 나, 연주를 하는 나, 음악을 만들고 연주하는 나, 음악을 만드는 과정에서 재미를 느끼는 나가 있는데 다 연결이 되니까요. 음악을 하면서 다양한 작업을 하는 것, 그것이 지금 제 인생에서 가장 재미있는 일이에요."

/장병호 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사진/파스텔 뮤직 제공



개국 10주년 tvN 드라마 라인업 공개

'치인트'부터 '디마프'까지 초호화 작품

내년 개국 10주년을 맞이하는 tvN이 2016년 드라마 라인업을 공개했다.

새해 첫 포문을 여는 드라마는 월화드라마 '치즈인더트랩'이다. 내년 1월 4일 첫 방송 예정이다. 동명 웹툰 원작으로 김고은·박해진·서강준·이성경·남주혁·박민지 등이 출연한다. '커피프린스 1호점' '하트투하트'의 이윤정 PD가 연출한다.

새해 첫 금토드라마인 '시그널'도 1월 첫 방송된다. 현재의 형사들과 과거의 형사가 낡은 무전기로 교감을 나누며 장기 미제사건을 해결해 나간다는 내용의 작품이다. 김혜수·이제훈·조진웅이 출연한다. '싸인' '유령'의 김은희 작가와 '미생'의 김원석 PD가 만났다.

3월에는 '기억'(가제)이 방송된다. 알츠하이머 선고를 받은 로펌 변호사 박태석을 주인공으로 삶의 소중한 가치와 가족애를 그리는 작품이다. '마왕' '부활'의 박찬홍 PD와 김지우 작가가 의기투합했다.



치즈인더트랩에 출연할 박해진, 김고은.

5월에는 금토드라마 '디어 마이 프렌즈'(가제)를 방송한다. 노희경 작가의 신작으로 '마이 시크릿 호텔'의 홍종찬 PD가 메가폰을 잡는다. 황혼 청춘의 이야기를 그리는 작품이다. 김영옥·김지영·김혜자·나문희·주현·박원숙·고두심·고현정·신성우가 캐스팅됐다. 조인성·성동일·이광수도 특별 출연한다.

/장병호 기자

여전히 그리운 '마왕'

故 신해철, 오늘 사망 1주기
방송·음반 등으로 추모 열기
유족·동료·팬 함께 추모식도

가수 신해철이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됐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의 음악을 들으며 다시는 만날 수 없는 '마왕'을 그리워한다.

27일 고(故) 신해철의 사망 1주기를 맞이해 그의 삶과 음악이 재조명되고 있다. 방송가에서는 신해철의 음악을 다시금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고인을 향한 그리움을 달랬다. 그의 유작을 담은 음반과 추모곡이 발표됐으며, 삶을 조명하는 책도 출간돼 고인을 다시금 추억하하게 만들고 있다.

지난 24일 방송된 JTBC '히든싱어4'는 그의 음악을 다시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신해철의 모창 능력자들이 출연해 그를 추억했다. 같은 날 방송된 KBS2 '불후의 명곡-전설을 노래하다'에서도 케이윌·홍경민·테이 등 동료 가수들이 신해철의 노래를 재해석해 안방을 뭉클하게 했다.



25일 오후 경기도 안성시 유토피아 추모관에서 열린 '신해철 1주기 추모식 및 봉안식'에서 팬들이 유골함이 봉안될 야외 안치단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1주기를 맞이해 특별한 뜻을 담은 음반도 발매됐다. 신해철 소속사 KCA 엔터테인먼트는 사망 1주기를 맞이해 유작과 숨겨진 명곡 등 40곡을 담은 앨범 '웰컴 투 리얼 월드'를 발매했다. 총 3곡의 유작을 수록해 추모의 의미를 더했다.

신해철과 절친했던 가수 윤종신은 그의 1주기인 27일에 맞춰 1집 수록곡을 리메이크한 '고백'을 발표했다. 윤종신은 "해철이 형 노래 중 발라드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곡"이라며 "가사를 보면 지금 썼다고 해도 어색하지 않을 만큼 시대를 초월하는 세련됨이 있다"고 밝혔다.

출판계에서도 신해철의 삶과 예술을 재조명하는 책이 출간됐다. 최지선·서정민갑·배순탁·이민희 등 음악평론가와 문화평론가 12명이 쓴 '인간 신해철과 넥스트시티'다. 신해철의 삶과 음악세계에 대한 이야기로 헌정의 의미를 담았다.

한편 고인의 1주기를 맞이해 지난 25일 고인의 유해가 있는 경기도 안성시 유토피아추모관에서는 유족·동료·팬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모식이 치러졌다. 이날 추모식에서 아내 윤원희 씨는 "암흑 속에 있는 것 같은 시간이었다"며 "힘든 와중에도 천사 같은 아이들이 제 손을 잡아줬고 온 국민의 애도와 격려를 받았다"고 지난 1년의 심정을 전했다.

/장병호 기자



함께서울
시민과 함께 세계와 함께
서울시뮤지컬단
Musical
서울1983
그리움은 지치지도 않고
가슴을 파고든다
연출 _ 김덕남 | 작 _ 김태수 | 작곡 _ 송시현
1983년 서울에서 시작된 그리움의 울부짖음
우리를 감동시킬 명배우 _ 나문희, 박인환
이산가족상봉 기념 특별할인
VIP 5만원, R 3만원 / 11월 2일 까지 예매자에 한함
2015.10.30-11.15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출 연 _ 나문희 박인환 곽은태 왕은숙 권명현 주성중 오성림 원유석 임승연 박정아 박선옥 이신미
이경준 박성훈 신대성 고준식 이연경 유 미 박원진 한일경 정선영 홍은주 우현아 이승재
김범교 허도영 김형석 주경환 김수영 조현태 송종현 도레미 박경진 김은별
예매처 _ 세종문화티켓 www.sejongpac.or.kr 02-399-1000
인터파크 ticket.interpark.com 1544-1555
관람료 _ VIP 110,000원 | R 90,000원 | S 70,000원 | A 50,000원 | B 30,000원
주 최 _ (재)세종문화회관 | 제작 _ 서울시뮤지컬단, (주)인사이트엔터테인먼트
문의 | 서울시뮤지컬단 02-399-1772~3

'장르 초월' 신개념 댄스 경연 내년 6월, 서울·파리서 개최

신개념 댄스 컴피티션 '댄스 엘라지' 네 번째 대회가 2016년 6월 서울과 파리에서 개최된다.

댄스 엘라지는 2010년 시작됐다. 나이나 국적, 학력과 분야에 상관없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아티스트라면 누구나 참여해 창의력을 겨룰 수 있는 열린 개념의 경연 대회다.

무용의 영역과 경계를 넘어 연극, 음악, 시각 예술, 건축, 영화 등 현대사회의 다양한 예술 장르를 총체적으로 아우르는 공연예술작품을 대상으로 경연을 진행한다. 지난해 3회째 컴피티션에서는 본선 20개 팀을 뽑는 대회에 전 세계 37개국, 319개팀이 지원했다.

댄스 엘라지는 지금까지 2년에 한번씩 총 세 번의 경연(2010년, 2012년, 2014년)이 떼아트르 드 라 빌에서 열렸다. 2016년에는 특별히 한-불 상호교류의 해를 맞아 파리 떼아트르 드 라 빌과 함께 서울 LG아트센터가 또 하나의 경연장으로 선정됐다. 댄스 엘라지가 파리 외에 다른 도시에서 개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세한 사항은 LG아트센터 홈페이지와 댄스 엘라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염지은 기자

印 무희가 들려주는 사랑의 드라마

유니버설발레단 '라 바야데르'
오늘부터 내달 1일 예술의전당
블록버스터급 클래식 발레 대작



유니버설발레단(단장 문훈숙)이 클래식 발레 중 가장 드라마틱한 발레로 손꼽히는 대작 '라 바야데르'로 관객과 만난다. 27일부터 11월1일까지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에서 공연한다.

라 바야데르는 유니버설발레단이 창단 15주년이었던 1999년 한국 발레 최초로 소개한 작품이다. 이번 공연은 25주년 기념 공연 이후 5년만이다.

라 바야데르는 프랑스어로 '인도의 무희'를 뜻한다. 신비롭고 이국적인 인도 황금 제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사원의 아름다운 무희 니키아, 권력과 사랑 사이에서 갈등하는 젊은 전사 솔로르, 무희에게서 전사를 빼앗으려는 공주 감자티, 무희에게 욕망을 품은 최고 승려 브라만까지 신분을 초월한 사랑과 배신이 드라마틱하게 그려지고 있다.

대규모 무대 세트, 150여명의 출연진, 400여벌의 의상으로 수 많은 발레 작품 가운데 단연 '초대형 블록버스터 발레'로 꼽히는 작품이다.

전체 3막 5장동안 무용수들은 숨쉴 틈 없는 춤의 향연을 펼친다. 1막에서 사원의 최고 무희 '니키아'와 전사 '솔로르'의 순수한 사랑의 2인무는 가장 아름다운 춤이다. 그리고 한 남자(솔로르)를 두고 벌이는 무희 '니키아'와 왕국의 공주 '감자티'의 팽팽한 신경전은 마치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듯 하다.

특히 여주인공인 무희 '니키아'의 드라마틱한 변신은 이 작품의 핵심이다.

공연의 백미는 3막 망령들의 군무다. 유니버설발레단은 특히 정련된 군무로 명성을 떨쳐왔다.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세밀하게 다듬어진 세계적 수준의 군무를 통해 숨이 멎을듯한 환상적인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다.

이번 유니버설발레단 '라 바야데르'에서는 총 7회 공연 동안 다섯 커플이 주역을 맡았다. 황혜민-엄재용, 강미선-콘스탄틴 노보셀로프, 김나은-강민우, 김채리-김태석, 홍향기-이동탁 등의 스타들이 향연을 펼친다. 특히 새로운 '니키아'로 데뷔하는 강미선, 김채리, 홍향기의 무대와 콘스탄틴 노보셀로프, 강민우, 김태석, 이동탁 등 새로운 '솔로르'의 탄생도 눈여겨볼만하다. 평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3시·7시, 일요일 오후 3시 공연한다. 초등학생 관람가, 1만~12만원. 문의 070-7214-1737.

/염지은 기자 senajy7@metroseoul.co.kr

TV 하이라이트

청심국제고 첫 번째 이야기

◆ JTBC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오후 9시30분

예은·샘 해밍턴·강남·혜이니 등 전학생 4인은 음악 수업 중 아카펠라로 환상의 하모니를 보여준다. 김정훈과 이준석은 자존심을 건 수학 대결을 펼친다. 후지이 미나는 혜이니와 함께 문학텐트를 만들어 지난 사랑의 추억을 떠올린다.

/정리=장병호기자 solan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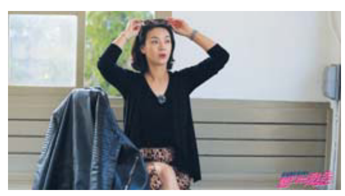
◆ tvN '집밥 백선생' 오후 9시 40분

마트에서 1+1 단골 행사 상품으로 등장하는 두부. 두부로 즐길 수 있는 건강 식단을 공개한다. 구이와 찌개 등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두부 요리법을 소개한다.



◆ SBS '불타는 청춘' 오후 11시15분

배우 박선영이 최연소 여자 멤버로 합류한다. 강렬한 호피무늬 치마와 빨간 하이힐을 신고 출연진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는다. 제기차기 등으로 반전 매력을 선보인다.



◆ JTBC '투유 프로젝트-슈가맨' 오후 10시50분

다이나믹 듀오와 제시가 게스트로 출연한다. 다이나믹 듀오는 진심이 담긴 가사를 방송 최초로 공개한다. 제시는 그동안 보여준 적 없는 장르에 도전한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7일(화)

KBS1	KBS2	MBC	SBS	JTBC	tvN	OCN	채널CGV
05:00 KBS 뉴스 05:10 내 고향 스페셜 06:00 KBS 뉴스광장 07:50 인간극장 08:25 아침마당 09:30 KBS 뉴스 10:00 정기국회 대통령 시정연설 10:40 세계인 스페셜 11:00 KBS네트워크특선 뮤직토크쇼 가요1번지 11:55 안녕 우리말 (재)	06:00 2TV 아침 1부 07:00 2TV 아침 2부 08:00 KBS 아침 뉴스타임 09:00 TV소설 별이 되어 빛나리 09:40 여유만만 10:40 지구촌 뉴스 11:00 1 대 100 (재)	05:00 MBC 뉴스 05:10 MBC네트워크특선 어부의 만찬 06:00 MBC 뉴스투데이 1부 06:25 MBC 뉴스투데이 2부 07:50 이브의 사랑 08:30 생방송 오늘 아침 09:30 MBC 생활뉴스 09:55 중계방송 박근혜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10:45 기분 좋은 날	05:00 SBS 5 뉴스 05:10 굿모닝 510-충전 힐링 라이프 06:00 모닝와이드 (1~3부) 08:30 어머님은 내 며느리 09:10 좋은아침 10:00 중계방송 국회 정기회 정부 시정연설 10:40 SBS 생활경제 11:30 접속! 무비월드 스페셜	06:00 힐링의 품격 (재) 07:00 이야기 보따리 (재) 07:30 JTBC NEWS 아침 & 09:00 김제동의 톡투유 스페셜 10:05 냉장고를 부탁해 (재) 11:25 히든싱어 4 (재)	06:00 코미디 빅리그 꿀잼 에디션 (재) 09:50 명단공개 (재) 10:50 문제적 남자 (재)	05:40 나탈리 07:00 늑대소년 09:20 본즈 시즌10	06:00 러브픽션 08:10 반창꼬 10:30 해무
12:00 KBS 뉴스 12 13:00 역사저널 그날 (재) 13: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재) 14:00 광복70년 국가미래전략 종합학술대회 15:00 우리말 겨루기 (재) 16:05 방송의 날 특집 신 실크로드 ' 아시아 TV로드' 연다 17:00 KBS 뉴스 5 17:20 시사진단	12:05 청춘FC 헝그리 일레븐 (재) 13:10 체인지업 도시탈출 (재) 14:00 KBS 뉴스타임 14:10 세상의 모든 다큐 (재) 15:05 후토스-잃어버린 숲 (재) 15:30 자동공부책상 위키 (재) 16:00 TV 유치원 16:30 이욱정 PD의 요리인류 키친 (재) 16:40 동물의 세계 17:00 VJ 특공대 (재)	12:00 MBC 정오뉴스 12:20 TV속의 TV 13:20 헬로키즈 아하! 동물탐험대 14:05 내꺼야 폴록 (재) 14:30 내 품에 라바와 친구들 15:10 꼬마돌 도도 15:40 통일전망대 16:25 딱 너 같은 딸 (재) 17:00 MBC 이브닝 뉴스 17:30 생방송 오늘 저녁 / (2안)	12:00 SBS 12뉴스 12:50 불타는 청춘 (재) 14:00 네트워크 현장! 고향이 보인다 15:00 SBS 뉴스 15:10 특집다큐 옛그림, 인생을 말하다 16:00 꾸러기탐구생활 스페셜 16:30 내 마음의 크레파스 17:00 SBS 뉴스 퍼레이드 17:30 로봇 트레인	13:15 비정상회담 (재) 14:35 JTBC 뉴스 현장 15:50 4시 사건 반장 17:10 5시 정치부 회의	12:20 삼시세끼 어촌편 시즌2 (재) 14:10 풍선껌 (재) 15:30 집밥 백선생 (재) 16:50 삼시세끼 어촌편 시즌2	13:30 더블 타겟(2007) 16:00 우리는 동물원을 샀다	12:40 초능력자 15:00 나의 사랑 나의 신부 17:20 더 임파서블
18:00 6시 내고향 19:00 KBS 뉴스 7 19:30 이산가족찾기 특집 65년만의 상봉 20:25 가족을 지켜라 21:00 KBS 뉴스 9 22:00 KBS의 중심에는 시청자가 있습니다 23:00 KBS 뉴스라인 23:40 창의인재 프로젝트 생각의 집	18:00 글로벌 24 18:30 2TV 저녁 생생정보 1 19: 50 다 잘될 거야 20:30 2TV 저녁 생생정보 2 20:55 1 대 100 22:00 발칙하게 고고 23:10 우리동네 예체능 24:35 스포츠 하이라이트	18:20 MBC스포츠 2015 KBO 한국시리즈 2차전 / (2안) 22:00 MBC 뉴스데스크 / (2안) 22:30 화려한 유혹 / (2안) 23:40 PD수첩 / (2안) 24:35 MBC 뉴스 24 / (2안) 24:45 마이 리틀 텔레비전 스페셜 / (2안)	18:00 생방송 투데이 19:20 돌아온 황금복 20:00 SBS 8 뉴스 20:55 SBS 뉴스토리 22:00 육룡이 나르샤 23:15 불타는 청춘 24:35 나이트라인	18:30 위험한 초대 19:55 JTBC 뉴스룸 21:30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22:50 투유 프로젝트-슈가맨 24:25 송곳 (재)	18:40 명단공개 (재) 19:40 오마이갓 20:40 현장토크쇼 TAXI 21:40 집밥 백선생 23:00 풍선껌 24:20 현장토크쇼 TAXI (재)	18:30 숨바꼭질 20:40 레드:더 레전드 23:00 크리미널 마인드 시즌10	19:30 7번방의 선물 22:00 히든 페이스 24:00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7연승 모비스, 1위 오리온 추격 나선다

2015-2016 시즌 프로농구

양동근 복귀 후 안정세 '10승 4패' 2위까지 상승

KT·KCC 연승행진 땐 내달 5일 오리온과 맞불

7연승의 울산 모비스가 1위 고양 오리온을 향한 맹추격을 하고 있다.

2015-2016시즌 프로농구는 개막과 함께 각종 변수가 생겨 각 팀 전력에 영향을 끼쳤다. 일부 선수들은 경찰 수사를 받아 출전이 보류됐다. 국가대표 선수들은 아시아선수권 출전으로 팀 전력에 보탬이 되지 못했다.

그러던 중 2라운드부터 외국인 선수 2명이 3쿼터에 한해 동시에 출전할 수 있도록 규정이 변경됐다. 국가대표 선수들도 팀에 돌아왔다.



7연승을 내달리고 있는 울산 모비스가 1위 고양 오리온을 향한 맹추격에 나선다. 사진은 지난 14일 강원 원주종합체육관에서 열린 원주 동부와의 경기에서 승리한 울산 모비스 선수들. /연합뉴스

27일 경기부터는 신인 드래프트에서 선발한 선수들이 가세한다. 26일 열린 신인 드래프트 결과에 따라 각 팀 전력에도 작지 않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경찰 수사를 받느라 출전이 보류됐던 선수 중 일부도 KBL 재정위원회 결과에 따라 기소유예 또는 불기소처분을 받아 코트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 국가대표급인 김선형(SK), 오세근(KGC인삼공사)이 나란히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만큼 이들이 복귀하면 해당 팀의 전력 상승은 불을 보듯 뻔하다.

4라운드부터는 외국인 선수 2명이 2,3쿼터에 동시에 뛸 수 있다. 2016년 1월 말에는 상무 전역 선수들이 복귀하는 등 팀별로 끊임없는 전력 변화가 예고돼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울산 모비스는 흔들림없이 7연승을 달리고 있어 주목된다. 모비스는 이번 시즌을 앞두고 문태영, 리카르도 라틀리프가 팀을 떠나 전력 약화가 우려됐다. 외국인 선수 드래프트에서 지명한 리오 라이온스도 부상을 당해 전력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국가대표로 차출됐던 양동근이 팀에 복귀한 뒤 빠르게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 어느 새 7연승을 기록, 10승 4패로 단독 2위까지 치고 올라왔다.

1위 고양 오리온은 24일 경기에서 전주 KCC에 패했다. 1, 2위 경기 차도 2경기로 좁혀졌다.

모비스는 오는 31일 부산 KT, 다음날 1일 KCC와 연달아 맞붙는다. 연승 행진을 이어간다면 다음달 5일 오리온과의 맞대결에서 치열한 선두 경쟁을 펼칠 가능성도 있다.

/장병호 기자 solanin@metroseoul.co.kr

日 언론 "이대호는 한국에서 온 영웅"

日시리즈 2차전 홈런 폭발 소프트뱅크 2연승 이끌어

일본 프로야구 소프트뱅크 호크스의 이대호(33)가 일본시리즈의 영웅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대호는 25일 일본 후쿠오카 야후오크돔에서 열린 야쿠르트 스왈로스와의 일본시리즈 2차전에서 4번 타자 1루수로 선발 출전해 투런 홈런을 쏘아 올렸다. 3타수 1안타 2타점으로 팀의 4-0 승리를 이끌었다.

소프트뱅크는 7전4승제의 일본 시리즈에서 1, 2차전을 모두 승리해 2년 연속 우승에 한 발짝 더 다가섰다.

이대호는 24일 열린 일본시리즈 1차전에서는 4타수 3안타를 쳤다. 이번 일본시리즈에서만 7



일본 프로야구 소프트뱅크 호크스의 이대호. /연합뉴스

타수 4안타(타율 0.571) 1홈런 2타점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일본시리즈에서 18타수 6안타(0.333) 1홈런 4타점으로 활약한 이대호는 올해 일본시리즈에서는 '영웅'으로 한 계단 더 올라섰다.

일본 산케이스포츠는 26일 "이대호가 초구 커브를 놓치지 않고 받아쳐 홈런을 만들고 벤치를 향해 승리 포즈를 취했다"며 "이대호는 역시 한국에서 온 영웅다웠다"고 칭찬했다.

올해 정규시즌에서 소프트뱅크 4번 타자로 뛴 우치카와 세이치가 늑골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한 것이 이대호의 존재감을 더 빛나게 하는 계기가 됐다.

일본 풀카운트는 "이대호가 우치카와와의 부상으로 4번 타자로 나서지만 그는 우치카와 대역이 아닌 진짜 한국의 거포"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대호는 27일 도쿄 메이지 진구구장에서 일본시리즈 3차전을 치른다. /장병호 기자



2015 FIFA U-17 월드컵에 출전 중인 한국 대표팀이 23일(한국시간) 칠레 코킴보 라스로사스 스포츠센터에서 훈련하고 있다. 대표팀은 29일 벨기에와 16강전을 벌인다. /대한축구협회·연합뉴스

한국, 29일 벨기에와 16강 격돌

U-17 월드컵

2015 국제축구연맹(FIFA) 17세 이하(U-17) 월드컵에 출전 중인 한국 대표팀이 벨기에와 16강전을 치른다.

최진철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 대표팀은 오는 29일 오전 8시(이하 한국시간) 칠레 라 세레나의 라 포르타다 스타디움에서 벨기에와 맞붙는다.

벨기에는 D조에서 아프리카 말리와 0-0으로 비긴 뒤 중남미의 온두라스를 2-1로 꺾었다. 조 1위를 달렸으나 에콰도르에 0-2로 패하며 1승1무1패를 기록, 조 3위로 16강에 진출했다.

한국은 이번 대회 B조에서 브라질과 기니를 각각 1-0으로 격파했다. 잉글랜드와는 0-0으로 비기면서 2승1무를 기록, 1위로 16강에 올랐다.

한국이 16강전에서 벨기에를 꺾는다면 8강에서 프랑스와 대결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 대회에서 조별리그 3전 전승으로 최고의 경기력을 보여온 팀이다. 프랑스는 30일 E조 2위 코스타리카와 16강전을 치른다. /장병호 기자

이용대-유연성·고성현-김하나, 나란히 우승

프랑스 오픈 배드민턴

배드민턴 남자복식 이용대(삼성전기)-유연성(수원시청)과 혼합복식 고성현(김천시청)-김하나(삼성전기)가 '2015 프랑스 오픈 배드민턴 슈퍼시리즈'에서 나란히 우승했다.

이들 두 복식조는 지난주 '덴마크 오픈 슈퍼시리즈 프리미어'에 이어 2주 연속 우승을 차지했다.

남자복식 세계랭킹 1위 이용대-유연성은 25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스타드 피에르 드 쿠베르텡 경기장에서 열린 대회 결승전에서 세계랭킹 9위 마즈 필러 콜딩-마즈 콘라드 페테르센(덴마크)을 상대로 2-0(21-14 21-19)으로 승리했다.

이용대-유연성은 지난달에도 일본오픈 슈퍼시리즈와 코리아오픈 슈퍼시리즈에서 2주 연속 우승을 거둔 바 있다.

혼합복식 세계랭킹 6위인 고성현-김하나는 결승전에서 세계랭킹 9위 프라빈 조던-데비 수산토(인도네시아)를 2-1(21-10 15-21 21-19)로 누르고 우승을 확정했다.

남자복식 김사랑-김기정(삼성전기)과 여자복식 정경은(KGC인삼공사)-신승찬(삼성전기)은 각각 3위를 차지했다. /장병호 기자

PGA 슈라이어스 오픈

케빈 나, 2주 연속 준우승

재미동포 골프선수 케빈 나(32)가 2주 연속으로 아쉬운 준우승을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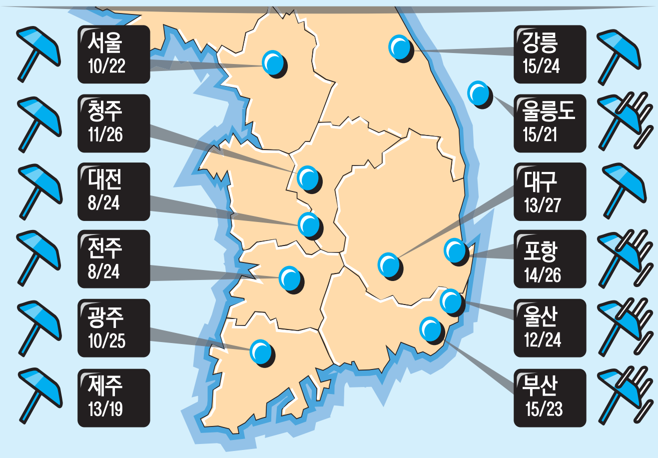
케빈 나는 26일(한국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의 서머린 TPC(파71·7223야드)에서 열린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슈라이너스 아동병원 오픈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4타를 줄이며 선두를 추격했다.

하지만 합계 1타가 모자라 연장전에 합류하지 못했다.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준우승(15언더파 269타)에 머물렀다. PGA 투어 개인 통산 8번째 준우승이다. /장병호 기자

날씨

10/27 화 일출시각 06:51 일몰시각 17:40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630.co.kr



자외선지수 피부질환가능지수
감기가능지수 천식-폐질환가능지수

자료제공 :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www.paik.ac.kr)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2		8		3	7
	6			3			1	
			9	6				8
1				7		8		2
8		6		9				3
5				1	2			
	3			8			4	
9	7		6		5			

					3	8		
	4		5		7		3	1
					8			7
	7					6		2
			1	5	9			
3		8					5	
2			9					
4	5		6		2		7	
		1	3					

스도쿠 정답

4	1	9	2	5	8	6	3	7
2	6	8	4	3	7	5	1	9
3	5	7	9	6	1	4	2	8
1	4	3	5	7	6	8	9	2
7	9	5	8	2	3	1	6	4
8	2	6	1	9	4	7	5	3
5	8	4	3	1	2	9	7	6
6	3	1	7	8	9	2	4	5
9	7	2	6	4	5	3	8	1

7	9	5	2	1	3	8	4	6
8	4	6	5	9	7	2	3	1
1	3	2	4	6	8	5	9	7
5	7	9	8	3	4	6	1	2
6	2	4	1	5	9	7	8	3
3	1	8	7	2	6	9	5	4
2	8	7	9	4	1	3	6	5
4	5	3	6	8	2	1	7	9
9	6	1	3	7	5	4	2	8

문제 제공= 보누스

'멘사 스도쿠 프리미어'
(피터 고든·프랭크 롱고 지음)

생활 영어

I can manage employees

A: Come in and have a seat.

B: Nice to meet you. Thank you for your time.

A: Thank you for your interest in ABC Company. Now… can you manage people?

B: Yes, I **can manage employees** without any problems.

A: Good. Can you use spreadsheet?

B: Yes, I can use Excel and other databases.

A: Can you speak foreign languages?

B: Yes, I can speak Korean, English and a little bit of Chinese.

저는 직원들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A: 들어와서 앉으세요.

B: 만나서 반갑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A: ABC 사에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관리할 수 있나요?

B: 네, 문제 없이 **직원들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A: 좋아요. 스프레드시트를 사용할 수 있나요?

B: 네, 엑셀 프로그램과 다른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수있습니다.

A: 외국어를 할 수 있나요?

B: 네, 한국어와 영어 그리고 중국어를 조금 합니다.

문법Point

can은 '~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가능성, 능력을 의미하는 조동사다. 인칭에 상관없이 사용하고 동사원형을 수반한다.

ex) Can you manage people? 사람들을 관리할 수 있으세요?
ex) I can manage employees. 직원들을 관리할 수있습니다.
ex) Can you run 10 kilometers? 10㎞를 달릴 수 있나요?

Words

manage 관리하다 foreign language 외국어
hire 채용하다

* Come in and have a seat : 들어와서 앉으세요
– 방문한 사람을 들어오라고 안내할 때 유용한 표현.

글로벌어학원 Global Language Institute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새로운 직업을 정하지 못해 고민입니다
창업은 무리… 돈과 관련된 일은 송사 위험

아땔 여자 72년 12월 11일 양력 16시

Q 저는 출판 편집 디자인 쪽에서 계속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제가 지쳤다고 해야 하는지 이 계통에서 계속 일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네요.

그래서 일단 직장을 다니면서 사회복지사 2급을 취득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회복지 쪽으로는 경력도 없고 모르는 분야라 섣불리 취업으로 연결은 하지 못했습니다.

작년 12월에 다녔던 직장을 괜히 그만두었나 하는 생각도 들고, 다시 작년에 들어갔던 회사로 들어가고 싶어서 팀장님에게 들어가고 싶다는 말은 했지만 가능할지 의문이고요. 공인중개사 시험을 볼까 생각은 하지만 어떤 분야가 나에게 맞는 직업인지 궁금하네요.

A 이번 글을 통해서 귀하뿐 아니라 독자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금융위기 이후 기업 등 사회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경제회복 노력은 계속하고 있지만 이직하는 성향은 급물살을 타듯이 멈추지를 않습니다. 이런 시대적 변화에서 어느 순간 직장구하기는 어렵고 일은 많아지고 힘든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직장을 두드려 보면 그나마 그만한 직장을 구하기가 더욱 어렵게 전개됩니다.

지치고 힘들더라도 이직 보다는 자신의 업무에 대해 갖고 있던 에너지를 다소모했는지를 파악하고 업무에 따른 능력을 축적하도록 연구하시길 바랍니다.

귀하는 외관이 단정하지만 관살혼잡(官殺混雜)으로 현실적 상황을 잘 판단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동안 해왔던 편집 디자인 일보다 사회복지일은 더 힘들 수 있음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의지가 강하므로 공부를 한다면 공인중개사도 시험에는 될 것입니다. 그러나 관살혼잡의 사주는 돈에 관계되는 일을 잘 못 처리하다가 송사에 휘말리기도 하니 자격증을 따더라도 홀로 창업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운세가 미약할 때는 성격이나 생각에 변화가 많은 편 이므로 외양내음(外陽內陰)에 속으로는 남모르는 시름이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현재 일이 풀리지 않는다 해도 잠시의 예비 경고등이라 생각하시면서 2017년 초까지 직업적인 만족도가 어렵다 해도 실망하지 말고 2015년 음력 10월 지나면서 직장이 생기면 꾸준히 다녀보십시오. 자존심이 강하고 고지식해 정직함을 주장하다가 기회를 놓치거나 융통성 부족으로 주변 친화력이 다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차후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 직업을 갖는다면 심사숙고하여 지식 기반을 단단히 다져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 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10월 27일 (음 9월 15일) 힐링운세(www.healingunse.com) 060-800-8877

쥐 **48년생** 여기저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60년생** 혼자 모든 것을 결정하였으니 어렵게만 됩니다. **72년생**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84년생** 너무 강하면 부러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소 **49년생** 새 업무를 하기에 아주 좋은 시기입니다. **61년생** 타인이 나를 도와 주려고 합니다. **73년생** 독자적인 생각을 고집하지 마세요. **85년생** 주변에서 만나는 이성과의 반대가 심합니다.

호랑이 **50년생** 의욕적으로 일에 임하세요. **62년생** 매사가 기로에 서서 갈등을 느끼게 됩니다. **74년생** 순리에 역행하는 생각은 멀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86년생** 유흥에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토끼 **51년생**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겠습니다. **63년생**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75년생** 꿈을 현실로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87년생** 이래 저래 변화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용 **52년생** 주위에서 인정을 해 표창을 받게 됩니다. **64년생** 조상을 잘 모셔야 나쁜 일을 면할 것입니다. **76년생** 음식을 조심하세요. **88년생** 구설수에 오를 수 있습니다.

뱀 **53년생** 식중독에 걸리기 쉽습니다. **65년생** 말조심하세요. **77년생** 윗사람과의 친목을 돈독히 한 덕을 볼 수 있겠습니다. **89년생** 마음을 편안히 가지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말 **54년생** 마음에 두고 있는 일이 있으면 밀고 나가세요. **66년생** 윗사람을 잘 따라야 합니다. **78년생** 무난한 하루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90년생** 바라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양 **55년생** 소원이 이루어 지겠습니다. **67년생** 사람들을 너무 믿어서는 안됩니다. **79년생** 재수가 좋을 것입니다. **91년생** 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다면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원숭이 **56년생** 지금까지 노력한 것이 보람이 있습니다. **68년생** 배신을 당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80년생** 각종 분야에 노력을 닦아온 결실이 맺어질 때입니다. **92년생** 애정운이 좋지 않습니다.

닭 **57년생** 몸 관리에 각별히 신경 쓸 시기입니다. **69년생**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집니다. **81년생** 명예와 부가 따르게 될 것입니다. **93년생** 자만하지만 않으면 탄탄대로 이겠습니다.

개 **58년생** 아주 좋은 시기를 만났습니다. **70년생** 어려운 일을 능히 이겨냅니다. **82년생** 병들기 전에 건강을 지키세요. **94년생** 각고의 노력 끝에 희망대로 소원이 풀리게 됩니다.

돼지 **59년생** 과감하게 밀고 나가야 할 시기입니다. **71년생** 여행을 떠나기에 아주 좋은 시기입니다. **83년생** 사업을 크게만 벌려고 하지 마세요. **95년생** 계획한 뜻을 굽히지 마세요.

치킨전문점, '배달형'과 '매장형' 구별해야



이상헌의 창업돋보기

치킨은 대표적인 유망 창업아이템이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수요가 꾸준한데다 누구나 쉽게 창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요리방법도 간단하다. 전문적인 자격증이 없이 일정 교육을 이수하면 요리가 가능하다. 창업비용도 다른 업종에 비해 저렴하다.

치킨시장 수요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한국계육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닭고기 소비량은 2004년 9.6kg, 2006년 12.9kg, 2010년 15.19kg, 2012년 16.5kg으로 매년 증가했다. 문제는 그만큼 매장들이 많아 경쟁이 치열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치킨 창업 시에는 고객의 소비 성향에 가장 근접한 아이템이 무엇인지,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는지에 따라 명암이 엇갈리게 마련이다.

치킨전문점 창업은 크게 세가지의 선택적 창업이 대세이다. 하나는 배달 중심, 다른 하나는 테이크아웃형이고 마지막으로 매장형 창업이다.

비비큐, 굽네치킨, 네네치킨, 호식이두마리치킨, 교촌치킨, 멕시카나, 페리카나, 티바두마리치킨, 비에이치씨치킨 등 배달위주의 매장창업이 가장 많은 창업의 형태다. 대부분 10평 이내의 소형 매장으로 일 30~50마리를 판매목표로 한다. 순수 배달형의 경우에는 입지의 중요성이 매장형 보다는 낮지만, 가시성이 높은 점포를 구하는 편이 좋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점포를 알리기 위한 홍보에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상권 특성에 따라 배달형으로 할 것인지, 매장형으로 할 것인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치킨마루, 가마로강정, 오마이치킨, 꿀닭 등 테이크아웃의 판매방식을 도입한 경우도 늘었다.

매장운영의 경상비중 배달을 위한 인건비등의 고정비가 상승함에 따라 판매가를 낮춘 형태로 창업비용이 저렴한 합리적 운영방식이다. 그러나 인건비를 줄이며 판매가를 낮추는 가격정책은 수익성면에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테이크아웃 브랜드로 치킨전문점을 창업할 경우 상권의 선택이 중요한 이유다.

둘둘치킨, 또봉이통닭, 사바사바치킨, 치킨매니아, 오빠닭, 오꾸닭, 누나홀닭, 치킨퐁등 매장형 창업도 증가하고 있다. 치킨과 호프를 동시에 서비스하고 치킨이외의 다양한 메뉴의 개발을 통해 수익성을 다양화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매장형 치킨전문점의 경우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역 부근, 빌딩가, 대단위 아파트 단지 내 상가 등이 최적지다. 아파트나 주택지의 경우에는 최소 2000가구 이상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점포는 퇴근동선과 이어지는 곳이 출근동선의 매장보다 유리하다.

치킨전문점은 지역 밀착형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단골고객 확보가 필수다. 이를 위해 온라인과 SNS를 통한 구전마케팅을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주 5일제와 경기 불황 등의 효과에 따른 가족 고객을 위한 마케팅 전략도 필요하다. 매장형이라면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고객을 위한 공간을 별도로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소장

경찰 '조희팔 사건'에 의지 보여야



기자 수첩
유 선 준
<정경사회부>

최근 검찰과 경찰이 3만여명을 상대로 4조원대 사기를 치고 종적을 감춘 '희대의 사기꾼' 조희팔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각각 수사팀을 꾸렸다.

겉으로는 검경이 합심해 이 사건의 종지부를 찍으려는 듯 하지만 실상 그러지 못하는 모양새다. 3년 전 경찰이 서둘러 조씨가 사망했다고 밝힌 때와 마찬가지로 검경의 공조가 잘 이뤄지지 않고 수사가 따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과거 경찰은 조씨의 생존여부와 그를 비호한 세력, 사기로 벌어들인 4조원대 돈의 행방을 밝히지 못한채 조씨 측이 제작한 51초 장례식 동영상을 근거로 서둘러 조씨의 사망을 발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근 들어서도 경찰은 살아있다는 전제 하에 검찰이 조씨의 뒤를 쫓겠다고 나서자 '물증이 없으니 살아있을지도 모른다'고 입장을 바꾸고, 뒤늦게서야 수사팀을 별도로 꾸렸다.

심지어 조씨의 최측근 강태용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3년 가까이 수배를 받아 오던 전직 경찰관 안모씨를 붙잡았는데도 공개하지 않았다. 급하게 송치했다는 이유에서다.

조씨를 비호하거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거나 수사대상에 오른 경찰관만 벌써 5명에 이른다면 경찰이 이 사건을 비호했다는 의구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검찰과 공조해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현재까지 경찰이 취한 행보로 봤을 때 소극적으로 수사해왔으며, 처리하는 방식에서도 석연찮은 구석이 많다.

이유가 어떻건 3년 전 여러가지 의문을 남긴 경찰수사 발표로 실망했던 국민이 다시 한번 수사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수사권 독립을 위해서 혹은 허물을 감추기 위해서 검경이 공조를 안하고 따로 노는 것이라면 이번엔 국민의 신뢰를 영원히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인사

◇연합뉴스TV ▷보도국장 엄남석 ▷경제부장 이정내 ▷국제팀장 한승호
◇KT&G ▷홍보실장(상무급) 김현태 ▷홍보1부장 백승규
◇외교부 ▷주두바이총영사 허남덕
◇기획재정부 △국장급 ▷감재정정보공개 및 국고보조금통합관리 시스템구축추진단장 파견 윤병태
◇국민안전처 △국장급 전보 ▷재난예방정책관 전담직무대리 부이사관 안영규
◇주택도시보증공사 △임원 전보 ▷기획본부장 김기돈 ▷금융사업본부장 홍광표 ▷자산관리본부장 강병권
◇해양환경관리공단 △부서장 전보 ▷인적자원팀장 김진배 ▷재무회계팀장 양석준 ▷규제개선TF팀장 조찬연 ▷방제기획팀장 나선철 ▷여수지사장 유세종 △부서장 보임 ▷전용예선팀장 문인정
◇경기도 ▷도시주택실 공동주택과장 최기용 ▷도시주택실 도시재생과장 이재영 ▷축산산림국 산림과장 이세우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여수시 △4급 승진 ▷의회사무국장 장채민 ▷보건소장 남택수 △5급 승진 ▷여성가족과장 직무대리 김지선 ▷묘도동장 직무대리 정재호 △5급 전보 ▷보건행정과장 신지영 ▷건강증진과장 정혜정

부고

▲정은모씨 별세, 박원익(의사)씨 배우자상, 박영호(캐나다 거주)·영준(삼성자산운용 고문)·영국(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장)씨 모친상 = 26일 오전 3시15분,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9호실, 발인 28일 오전 7시(02-3410-3151)
▲허순복씨 별세, 이연옥(울산 오영수문학관 관장)씨 모친상 = 26일 오전 11시 42분, 울산 동강병원 장례식장 특7호, 발인 28일 오전 7시 30분(052-241-1447)
▲정현숙(기상청 대변인)씨 부친상 = 26일 오전 5시 20분, 경북 영천시 영남대학교 영천병원 장례식장 특실, 발인 28일 오전 (054-330-7396)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편집국장	이 장 규
인 쇄 인	송 필 호
광 고 문 의	02)721-9851,3
독 자 센 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社說

좀비기업 구조조정 서둘러야

국내 30대그룹 계열사 가운데 '좀비기업'이 뜻밖에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계열사 5개 가운데 하나는 영업해서 벌어들인 이익으로 이자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벌닷컴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내 30대 그룹 1050개 계열사 가운데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기업이 모두 236개로 전체의 22.5%에 이른다. 좀비기업 비율이 20%를 넘는 그룹은 모두 14개그룹을 헤아린다. 동부그룹을 비롯해 에쓰오일과 미래에셋그룹의 경우 계열사 절반 가량이 좀비기업이다. 놀라운 것은 대형그룹도 좀비기업 비율이 낮지 않다는 사실이다. 포스코그룹은 30%를 넘고 SK와 삼성그룹도 20%에 육박한다.

30대그룹 주력기업은 대체로 비교적 건실하고, 좀비기업에 속하는 기업이 그다지 크지는 않다. 좀비기업과 주력기업이 채무보증 등으로 얽혀 있는 경우도 많지 않다. 그렇기에 좀비기업이 일부 있다고 해서 그룹 자체가 크게 흔들리지는 않는다. 과거 외환위기를 전후해서 도산했던 일부 부실 재벌들과는 이 점에서 결정적으로 다르다.

그렇지만 좀비기업이 있으면 경영자원의 일부가 비효율적으로 묶이고 허비된다. 지난해 30대 그룹이 산출한 부가가치 총액이 전년보다 0.6% 감소했다는 한 조사결과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에 좀비기업이라고 판명될 경우 신속하게 정리해야 한다. 그래야 경영환경이 더 악화되더라도 안심할 수 있다. 정부도 좀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그러므로 정부와 협조하되 우선 스스로 구조조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좀비기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0대그룹의 경우 주력기업이 비교적 튼튼하다는 것 하나 믿고 사업성이 불투명한 분야에 깊은 생각 없이 진출한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일부 그룹의 경우 '전공분야'도 아닌데 함부로 발을 들여놓아 곤욕을 치르고 있다.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역량을 집중해서 세계최고 기업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번영의 길이 아닐까 한다.

이혼 때 재산은닉 방지하려면?

생활 법률

재산명시제도 유용해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1년가까이 재산분할·위자료 청구, 양육권 소송 등 여러가지 이혼 관련 소송을 진행하느라 심신이 지친 상태다.

정이 떨어진 두사람은 이혼 관련 소송들을 어서 마무리 짓고 새 삶을 살고 싶은 마음 뿐이다.

하지만 이 많은 이혼 소송들을 병합해 진행했을 때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다. 바로 재산분할이다.

재산은 보통 배우자 쌍방의 명의로 돼 있기보다는 일방의 배우자 명의로 돼 있는 경우가 많다. 재산분할청구소송은 혼인기간 형성된 재산과 혼인 전, 혼인 이후의 특유재산(증여·상속된 재산, 혼인 전 일방으로 형성한 재산 등)을 가르기 위해 기여도를 따진다.

이때 많은 명의자들이 애초 분할 대상이 될 재산을 최대한 줄여 상대 배우자에게 덜 주고자 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하기도 한다. 이 행위를 재산은닉이라고 하는데, 이 행위를 할 경우 강제집행면탈죄 혐의를 받을 수 있다.

이혼하기 직전 이토록 악의적으로 상대방이 재산은닉을 해 본래 받아야 할 재산을 온전히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재산분할 청구권자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재산명시제도다.

재산명시제도는 이혼재산분할 때 상대 배우자의 재산목록을 제출하게끔 하는 제도다. 재산명시를 명령 받은 배우자는 재산목록에 자신의 명의인 재산 이외 다른 사람에게 명의 신탁된 재산, 채무 역시 기록해야 하며 최근 재산이 어떻게 변했는지도 모두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서면만으로 재산명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직접 출석해 판사와 대면하는 과정도 거쳐야 한다. 이 제도를 통해 이혼 후 자신이 얼마나 불합리한 재산을 받을 수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기에 유용한 제도라 할 수 있다.

/유선준 기자 rsunjun@



시대를 읽어
식탁에 올리다
편의점 식당
바쁜 일상에 쫓겨 편의점에서
급한대로 식사를 해결하는 현상
그래서 청정원
한 끼 식사 부럽지 않은
꽉 찬 간편식을 만들다
오리엔탈핫소스 가츠동
데리마요소스 가츠동
펜네 아라비아따
KATSUDON
TERIYAKI MAYO
푸드를 아는 사람들
청정원